

정책보고서 2023-00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793-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22-23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신윤정·정희선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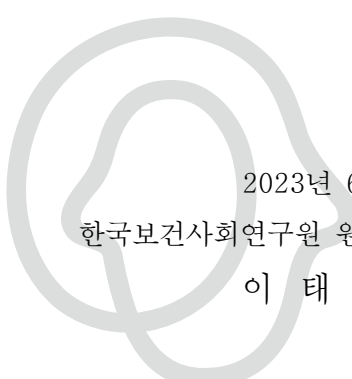
공동연구진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제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3. 21.)한 「2022-23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현황 .....	7
제1절 개요 .....	9
제2절 가족의 구조 .....	11
제3절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12
제4절 가족과 아동 정책 .....	13
제5절 아동의 성과 .....	18
제6절 소결 .....	4
제3장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	3-5
제1절 개요 .....	5
제2절 가족의 구조 .....	7
제3절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9-6
제4절 가족과 아동 정책 .....	67
제5절 소결 .....	8

---

제4장 아태지역 가족 정책의 최근 현황 .....	7· 8
제1절 중국 .....	9
제2절 일본 .....	5
제3절 몽골 .....	101
제4절 싱가포르 .....	12
제5절 태국 .....	106
제6절 베트남 .....	107
제7절 말레이시아 .....	18
제8절 인도네시아 .....	11
 제5장 결론 및 제언 .....	 18
 참고문헌 .....	 119
 부록 .....	 121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가족의 구조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	1
<표 2-2>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	1
<표 2-3> 가족과 아동 정책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	1
<표 2-4> 아동의 성과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	1
<표 2-5> 아태지역 2022-23년도 가족데이터베이스 갱신에 활용한 조사 자료: 가족의 구조 .....	4
<표 2-6> 아태지역 2022-23년도 가족데이터베이스 갱신에 활용한 조사 자료: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4
<표 2-7> 각 영역별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지표들 .....	5
<표 3-1>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분석에 활용된 지표 .....	5
<표 3-2> 아태지역 가족 DB 워크숍 일정 및 발표자와 토론자 .....	5
<표 3-3> SF1.1.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의 활용 자료 .....	5
<표 3-4>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youth dependency ratio의 활용 자료 .....	6
<표 3-5> SF2.1. Fertility rates의 활용 자료 .....	6
<표 3-6>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의 활용 자료 .....	6
<표 3-7>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의 활용 자료 .....	6
<표 3-8>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의 활용 자료 .....	6
<표 3-9> 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의 활용 자료 .....	6
<표 3-10>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의 활용 자료 .....	7
<표 3-11>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 time workers의 활용 자료 .....	7
<표 3-12>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의 활용 자료 .....	7
<표 3-13> LMF2.1. Usual working hours per week by gender의 활용 자료 .....	7
<표 3-14> PF1.3. Family cash benefits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 .....	7
<표 3-15> PF2.1.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systems 현황 .....	8
<표 3-16> PF1.4.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education services 체계 .....	8





# 그림 목차



[그림 4-1]	중국의 조사망율과 조출생율 추이 (1978-2020) .....	0	9
[그림 4-2]	중국의 출생아 수와 주요 출산 정책 (1980-2021) .....	1	9
[그림 4-3]	중국의 연령 집단별 평균 이상 자녀 수 .....	3	9
[그림 4-4]	중국의 연령 집단별 이상 자녀 수 분포 .....	3	9
[그림 4-5]	중국의 연령 집단별·지역별 평균 이상 자녀 수 .....	4	9
[그림 4-6]	중국의 연령 집단별·지역별 이상 자녀 수 분포 .....	5	9
[그림 4-7]	일본의 출생아 수 추이 (2010-2030) .....	6	9
[그림 4-8]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0-2020) .....	7	9
[그림 4-9]	일본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0-200) .....	7	9
[그림 4-10]	일본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수급자 수 및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 (2015-2021) .....	8	9
[그림 4-11]	일본의 육아 휴직 제도의 개혁 .....	9	9
[그림 4-12]	일본의 아동 및 가족 위원회의 업무 영역 .....	0	1
[그림 4-13]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과 총출생아 수 추이 (1990-2021) .....	2	1
[그림 4-14]	싱가포르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1990, 2000, 2010, 2020) .....	3	1
[그림 4-15]	싱가포르의 「2022년 여성 개발 백서」 와 「2025년 가족을 위한 싱가포르 만들기」 .....	0	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 제 1 장 서론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변화하고 있는 가족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도에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신윤정·유재언·김혜영·윤자영, 2013). 2014년도에는 아태지역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인 홍콩, 태국, 베트남까지 포함하여 분석 대상 국가를 확장하였다 (신윤정·송민영·조영태·Basten, 2014). 분석 대상 국가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2018-2019년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였으며, 2021-2022년 연구에서는 몽골까지 추가하여 총 8개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윤정·이지혜·임지혜, 2021).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아태지역의 가족 변화와 가족 정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를 기초로 OECD 사무국이 「OECD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OECD, 2017; OECD 2019; OECD 2021)을 발행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작업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수집된 아태지역 자료를 기초로 주요 지표별로 가족의 구조,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가족과 아동 정책 동향 등 각 국가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아태지역 가족 전문가 회의」를 매해 추진하여 가족 자료 수집과 관련한 이슈와 정책 동향을 아태지역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아태지역 가족 자료는 지금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아태지역 국가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연구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지표를 중심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표는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는 OECD

Family database (이후 'OECD FD')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OECD 국가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마련된 OECD FD의 지표 내용과 체계에 따라 아태지역의 가족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OECD 회원국가들과는 다른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족 정책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태지역 국가들도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가족 정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교를 통한 정책 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향후 아태지역 가족 자료의 지표의 양적인 측면에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 생산에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아태지역 가족 자료 생산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올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집한 가족 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수집한 자료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각 대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별로 올해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영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표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추가적인 자료 생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주요 핵심적인 지표들에 대해 각 국가가 OECD 정의에 부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 때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수집된 자료가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태지역 가족 자료의 질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태지역의 가족 변화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의 아태지역 가족과 정책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은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현황”은 2022-23년도에 수집한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자료에 기초하여 각 영역별 지표에 포함된 표와 도표를 중심으로 올해 사업에서 업데이트 된 표와 도표는 무엇이며, 2021-22년도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진 표와 도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올해 사업을 통해 어떠한 지표에 대해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자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자료 업데이트에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였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2021-22년도와 비교하여 2022-23년도에 추가적으로 자료 생산이 된 표와 도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향후 아태지역 가족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생산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각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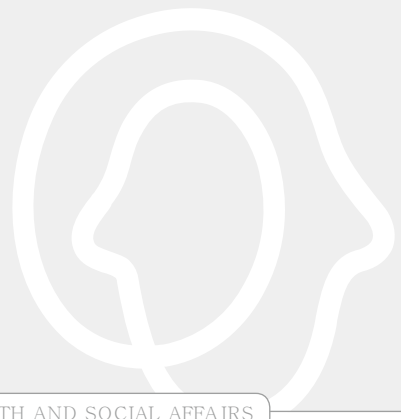
제3장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의 비교 가능성”은 OECD(2021)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21 Project Report」에서 분석한 가족의 구조 및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에 포함된 14개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14개 지표들은 OECD의 판단으로 볼 때 아태지역 간의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 지표들이라고 생각된다. OECD(2021)은 상기의 보고서에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수집된 14개 지표들에 대해 자료 수집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해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14개 지표들은 아태지역 가족 지표의 비교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에 유용한 지표들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지표의 정의와 각 국가가 자료 분석 시 사용한 정의를 비교 분석하고, 각 지표를 분석할 때 활용한 자료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국가가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할 때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아태지역 가족 DB 워크숍」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14개 지표의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 “아태지역 가족 정책의 최근 현황”에서는 아태지역 각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 변화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아태지역 가족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하였다. 「제6차 아태지역 가족 정책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한 각 국가별 자료를 정리하여 국가별로 직면한 이슈와 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아태지역 가족 자료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을 제언하였다.





## 제 2 장

###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현황

- 제1절 개요
- 제2절 가족의 구조
- 제3절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제4절 가족과 아동 정책
- 제5절 아동의 성과
- 제6절 소결



## 제 2 장

#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현황

### 제1절 개요

OECD Family database(이하 “OECD FD”)는 OECD가 회원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과 아동의 현황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회원 국가가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베이스이다. 2006년도 말에 유럽 지역의 OECD 회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최초로 공개된 이후 2008년도에 23개 지표를 시작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OECD 사무국은 현재까지 지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OECD FD를 토대로 각 회원 국가들의 가족 현황과 정책을 비교 가능하게 하여 회원국가들이 출산율 변화를 포함한 인구 변화와 가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OECD FD는 OECD 회원 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와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에게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본 장에서는 2022-23년도 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의 수집과 갱신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갱신 대상이 되는 지표는 2022년 5월 17일 현재 OECD FD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표이다. 업데이트 대상이 되는 표와 도표는 가족의 구조 68개,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6개, 가족과 아동 정책 92개, 아동의 성과 93개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2021년도에 제공되고 있었던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거나, 제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자료원을 찾아서 제공하였다. 올해 연구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은 표와 도표들은 2021년도 현황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OECD FD는 가족의 구조,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가족과 아동 정책, 아동의 성과의 네 가지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대분류는 세부적인 중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 중영역별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표들은 표와 도표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갱신은 각 지표들에 포함된 표와 도표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각 지표별 표와 도표는 한 개 혹은 다수의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표와 도표의 모든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공,” 다수의 데이터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제공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지 못한 경우 “부분적 제공,” 해당되는 데이터가 모두 제공되지 못한 경우 “제공 불가능”이라고 구분하였다. 2022년도에 수행한 자료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표와 도표의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경우 “모두 제공,” 다수의 데이터 중 부분적으로만 업데이트하고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는 못한 경우 “부분적 제공,” 해당되는 데이터를 모두 업데이트하지 못한 경우 “제공 불가능”이라고 구분하였다.

OECD FD의 대영역별로 국가별 자료 제공 및 업데이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절 부터 각 대분류별로 각 국가들이 올해 사업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지표들은 무엇이며, 2021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갱신되지 못한 지표들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의 수집과 갱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lt;표 2-1&gt; 가족의 구조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국가	구분	2021년 제공 현황	2022년 업데이트	2023년 제공 현황
한국	모두 제공	40	35	40
	부분적 제공	14	10	14
	제공 불가능	14	23	14
	계	68	68	68
중국	모두 제공	33	12	31
	부분적 제공	21	15	23
	제공 불가능	14	41	14
	계	68	68	68
몽골	모두 제공	26	14	27
	부분적 제공	20	11	19
	제공 불가능	22	43	22
	계	68	68	68
싱가포르	모두 제공	23	23	28
	부분적 제공	20	19	20
	제공 불가능	25	26	20
	계	68	68	68
태국	모두 제공	21	8	21
	부분적 제공	13	12	13
	제공 불가능	34	48	34
	계	68	68	68
베트남	모두 제공	20	11	22
	부분적 제공	14	13	14
	제공 불가능	34	44	32
	계	68	68	68
말레이시아	모두 제공	19	11	23
	부분적 제공	11	16	15
	제공 불가능	38	41	30
	계	68	68	68
인도네시아	모두 제공	29	18	37
	부분적 제공	13	11	15
	제공 불가능	26	39	16
	계	68	68	68

<표 2-2>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국가	구분	2021년 제공 현황	2022년 업데이트	2023년 제공 현황
한국	모두 제공	31	35	31
	부분적 제공	19	10	21
	제공 불가능	46	51	44
	계	96	96	96
중국	모두 제공	41	5	40
	부분적 제공	27	5	30
	제공 불가능	28	86	26
	계	96	96	96
몽골	모두 제공	37	14	37
	부분적 제공	43	16	43
	제공 불가능	16	66	16
	계	96	96	96
싱가포르	모두 제공	13	16	16
	부분적 제공	14	17	17
	제공 불가능	69	63	63
	계	96	96	96
태국	모두 제공	31	19	31
	부분적 제공	12	19	12
	제공 불가능	53	58	53
	계	96	96	96
베트남	모두 제공	13	14	14
	부분적 제공	16	16	19
	제공 불가능	67	66	63
	계	96	96	96
말레이시아	모두 제공	3	12	12
	부분적 제공	8	11	12
	제공 불가능	85	73	72
	계	96	96	96
인도네시아	모두 제공	23	16	26
	부분적 제공	25	11	25
	제공 불가능	48	69	45
	계	96	96	96

&lt;표 2-3&gt; 가족과 아동 정책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국가	구분	2021년 제공 현황	2022년 업데이트	2023년 제공 현황
한국	모두 제공	58	33	58
	부분적 제공	15	7	16
	제공 불가능	19	52	18
	계	92	92	92
중국	모두 제공	25	4	25
	부분적 제공	8	1	8
	제공 불가능	59	87	59
	계	92	92	92
몽골	모두 제공	15	4	15
	부분적 제공	10	5	11
	제공 불가능	67	83	66
	계	92	92	92
싱가포르	모두 제공	10	21	22
	부분적 제공	3	18	18
	제공 불가능	79	53	52
	계	92	92	92
태국	모두 제공	18	8	19
	부분적 제공	10	9	10
	제공 불가능	64	75	63
	계	92	92	92
베트남	모두 제공	20	5	23
	부분적 제공	5	13	5
	제공 불가능	67	74	64
	계	92	92	92
말레이시아	모두 제공	6	21	23
	부분적 제공	4	6	8
	제공 불가능	82	65	61
	계	92	92	92
인도네시아	모두 제공	15	14	25
	부분적 제공	8	15	18
	제공 불가능	69	63	49
	계	92	92	92

<표 2-4> 아동의 성과 부문 국가별 자료 제공 업데이트 현황

국가	구분	2021년 제공 현황	2022년 업데이트	2023년 제공 현황
한국	모두 제공	57	21	57
	부분적 제공	23	11	23
	제공 불가능	13	61	13
	계	93	93	93
중국	모두 제공	30	10	28
	부분적 제공	26	14	29
	제공 불가능	37	69	36
	계	93	93	93
몽골	모두 제공	17	7	18
	부분적 제공	20	12	19
	제공 불가능	56	74	56
	계	93	93	93
싱가포르	모두 제공	32	28	41
	부분적 제공	12	19	21
	제공 불가능	49	46	31
	계	93	93	93
태국	모두 제공	30	20	37
	부분적 제공	30	17	30
	제공 불가능	33	56	26
	계	93	93	93
베트남	모두 제공	26	13	27
	부분적 제공	29	20	30
	제공 불가능	38	60	36
	계	93	93	93
말레이시아	모두 제공	20	19	32
	부분적 제공	20	25	25
	제공 불가능	53	49	36
	계	93	93	93
인도네시아	모두 제공	51	20	60
	부분적 제공	13	18	14
	제공 불가능	29	55	19
	계	93	93	93



## 제2절 가족의 구조

### 1. 한국

한국은 지난해 연구(신윤정 외, 2021)<sup>1)</sup>에서 40개 표와 도표가 자료가 모두 제공이 가능했으며, 14개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를 부분적으로 제공했고, 14개의 표와 도표자료가 모두 제공 가능하지 않았다. 올해 연구에서 표와 도표의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 된 것은 35개, 부분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은 10개, 모두 업데이트 되지 못한 것은 23개였다. 이 결과 2023년도에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지표는 40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지표는 14개, 자료가 제공 가능하지 못하는 지표는 14개이다. 2023년도 자료 제공 현황은 2021년도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

자료가 업데이트 된 것은 가족 규모와 구성, 아동 연령별 인구 및 청년 부양비, 출산율, 자녀 출생 시 모의 연령, 혼외 출생, 무자녀, 혼인율과 이혼율이다. 밀집 가구 거주 아동과 기본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등 아동의 생활 조건 관련 표와 도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자녀수, 가족 해체와 아동 관련 표와 도표에 대해서도 갱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 업데이트는 2020년 인구센서스, 2021년 인구동향, 2022년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최신 자료로 갱신되어 이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의 자료를 분석한 경우이다.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가 갱신되지 못하고 있는 지표들은 아동이 있는 가구 유형, 밀집된 가구 혹은 환경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 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 동거 관련 표와 지표들이다. 업데이트 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당 표와 도표를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의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자료 갱신이 어려웠다. 2018년도 World Value Survey, 2019년 가족폭력실태조사의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관련 표와 도표를 갱신하지 못했다. 동 조사가 새롭게 수행될 때 해당 지표의 자료는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당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생산이 어려웠다. 아

1) 이하 “지난 해 연구” 혹은 “작년도 연구”는 「신윤정·이지혜·임지혜. (2021). 2020-21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말한다.

동의 가구 유형(빈곤 가구 등), 동거하는 부모 가구, 밀집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환경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 이상 자녀 수 등은 해당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자료가 없어서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다.

지표의 정의가 모호한 경우에도 자료 생산이 어려웠다. 과거 혼인 경험별 혼인 유형 지표에서 과거의 혼인 경험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남편 사별, 여성 이혼의 경우 과거 혼인 경험을 사별로 해야 하는지 혹은 이혼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못해 분석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가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 정의의 모호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중국

지난해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3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1개, 모든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14개였다. 올해 연구에서 12개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15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인 자료가 갱신되었고, 41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업데이트 결과 2023년 현재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1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3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14개이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2개 감소하였다. 이는 2021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었던 2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021년과 2023년 동일하게 14개이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지표는 출산율 지표, 출산 연령 지표, 혼인 및 이혼 지표, 아동 인구 지표이다. 자료 갱신에 활용된 기초 자료는 중국 내부 자료로 2020년 중국 인구 및 고용통계(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2020년 중국 민정부 통계집, 국제 자료로 UN 인구국 2019년도 개정판 「World Population Prospects」, World Bank 2021년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년도 UN World Fertility data이다.

지속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아동의 거주 환경 관련 지표, 혼외 출산 관련 지표들이다. 중국은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수집이 어려운 지표들 -아동

이 거주하는 가족의 구조, 이상적인 자녀 수,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가족 해체, 동거 현황, 가족 폭력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중국 사회 조사(China Social Survey), 중국 가족 패널 조사(China Family Panel Studies), 중국 여성 사회 지위 조사(Chinese Women's Social Survey) 등 중국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자료 구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샘플 서베이 자료를 통해 마련된 수치가 중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 분석 결과를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3. 몽골

몽골은 지난해 연구에서 26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20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고, 22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올해 연구에서 14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으며, 11개 표와 도표의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하였고, 43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에는 27개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제공되고, 19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22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의 자료 구축 현황은 2021년도의 자료 구축 현황과 거의 동일하다.

2022년도에 갱신된 표와 도표가 있는 지표들은 가구 유형별 가구 규모, 아동 연령별 인구 및 청년 부양비, 출산율, 모의 자녀 출산 연령 및 연령별 출산율, 혼외 출산 비중, 혼인율 및 이혼율,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이다. 몽골은 새롭게 실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표와 도표를 업데이트하였다. 국립 통계국의 2021년도 통계연보(NSO Yearly Statistics, 2021)와 인구통계자료, 보건부의 2021년도 공공보건통계, 그리고 World Bank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지표의 표와 도표를 갱신하였다. 지난해 연구에서 업데이트하지 못했던 순위별 출생, 조혼인율 관련 표와 도표들도 최근에 수행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업데이트하지 못한 표와 도표들이 포함된 지표들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유형, 밀집된 가구 혹은 환경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무자녀, 가족 해체, 동거, 가족 폭력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난해 연구에서 2020년 인구센서스를 활용하여 이미 분석을 완료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베이 자료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관련 지표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사회지표조사는 2013년도와 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동 조사가 최근 연도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해당 자료를 갱신하지 못했다.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그리고 초산 연령 자료는 2013년도 사회지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거의 10년 전 자료로서 새롭게 갱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10년 전의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해당 사회지표 자료가 향후 갱신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업데이트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해당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이다.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유형 (동거 부모, 빈곤 등), 밀집 가구 혹은 환경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무자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어 관련된 표와 도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난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3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5개이었다. 올해 연구에서 23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19개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었고, 26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8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0개가 되었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두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3개에서 28개로 총 5개 확대되었고,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았던 표와 도표는 25개에서 20개로 총 5개 감소하였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표와 도표가 포함된 지표는 가족 규모와 구성, 아동 연령별 인구 및 청년 부양비, 출산율,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자녀 출생 시 모의 연령 및 연령별 출산율, 혼외 출생 비중, 무자녀, 혼인율 및 이혼율, 가족 해체와 아동, 동거, 가족 폭력이다. 이러한 표와 도표들은 싱가포르 통계부(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가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가구 통계, 출생 및 사망 등록 자료, 혼인과 이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들이다. 또한 외국 자료로서 UN Population Division의 2022년도 World Population Prospect, 2020년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자료가 제공되는 지표들은 가족의 규모와 구성,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무자녀, 동거 및 이혼 관련 지표들이다. 자료 갱신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이유는 조사 자료의 설문 문항 혹은 분석 방식들이 OECD FD의 표와 도표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들이 포함된 지표들은 아동이 있는 가구 구조, 밀집된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기본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 혹은 환경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혼외 출생 자녀, 가정 폭력 발생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분석이 가능한 기초 자료가 싱가포르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5. 태국

태국은 지난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21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3개,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가 34개였다. 올해 연구에서 8개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12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었고, 48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다. 2022년도 자료 갱신 결과, 2023년도 현재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21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3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가 34개로 2023년 현황은 2021년도 현황과 동일하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은 2021년도 고용조사 (Labor Force Survey, 2021), 2022년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보건부 자료 등 최근에 갱신된 자료를 활용한 경우이다. 하지만 올해 연구에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과거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코호트 완결 출산율 지표, 무자녀 관련 지표, 평균 초혼 연령 등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상 자녀 수를 산출하기 위해 2009년 재생산보건조사(Reproductive Health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지 못했던 혹은 부족했던 자료를 새롭게 갱신한 노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너무 오래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은 최신 자료로서 갱신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과거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후속적인 조사가 향후에 이루어져서 해당 지표의 자료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지표들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유형, 밀집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 위생 시설이 부족한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혼외 출산, 과거 혼인 경험별 혼인 유형, 이혼 관련 지표, 동거 관련 지표, 가정 폭력 관련 지표이다.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조사 자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6. 베트남

베트남은 지난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20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된 표와 도표가 14개,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 않은 표와 도표가 34개였다. 올해 연구에서 모든 자료를 업데이트한 표와 도표가 11개,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한 표와 도표는 13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표와 도표는 44개였다. 업데이트 작업 결과,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 가능한 표와 도표는 22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4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표와 도표는 34개이다. 2021년과 비교하여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개 증가하였고,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개 감소하였다.

올해 업데이트한 경우 2019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하면서 자료가 갱신된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작년도 연구에서도 2019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갱신했으나 자료 갱신은 제한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2019년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많은 부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또 다른 사례는 후속적인 연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Institute of Sociology의 2021년도 샘플 조사를 활용한 경우와 2021년도 법무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Institute of Sociology의 2021년도 샘플 조사를 활용한

여 자녀가 있는 가구 유형의 일부 지표가 갱신되었고,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일부 지표가 갱신되었다. 2021년도 법무부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 자녀 수별 이혼 분포에 대한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었다.

2019년 센서스 자료를 작년도 연구에서 이미 분석한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데이터가 갱신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표와 도표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동의 가구 유형, 밀집 가구 거주 아동, 환경 위험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 순위별 출생아 비중, 이상 자녀 수, 평균 자녀 출산 연령, 혼외 출생 비중, 무자녀 비중, 동거 관련 지표, 가정 폭력 관련 지표는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서 분석하여 제공하지 못했다.

##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작년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9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1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38개였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을 통해 11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고, 16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41개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갱신되지 않았다. 업데이트 결과, 2023년 현재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3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5개, 자료가 제공 불가능한 표와 도표가 30개가 되었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9개에서 23개로 4개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1개에서 15개로 4개 증가하였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38개에서 30개로 감소하였다.

자료가 갱신된 경우는 첫째, 조사 자료의 연도가 갱신되면서 최근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한 경우이다. 2000년도 인구센서스 자료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0), UN 인구국의 2022년도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자료, 2022년도 Vital Statistics, 혼인 및 이혼 통계 2022년도 자료를 활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기존에 활용했던 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를 갱신한 경우이다. 기존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혼인과 이혼 관련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새로운 연구 결과 혹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자료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족 폭력 지표에 대한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내 연구 혹은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경우는 첫째,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과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로 World Population Prospects의 2017년과 2019년 자료를 활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등록 담당 부서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혼외 자녀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지 못하였다. 둘째, 새로운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자료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당 부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이다. 인구센서스의 경우 2020년도 데이터가 제공되었으나,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지 못하였다. 셋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아동의 가족 유형 (법적 혼인 부모, 사실혼 부모, 한부모 등), 밀집 가구 혹은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 무자녀, 과거 혼인 경험별 혼인 유형, 이혼 혹은 동거 관련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연구에서 모두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29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3개,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가 26개였다. 올해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된 표와 도표는 18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된 표와 도표는 11개,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못한 표와 도표는 39개였다.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 현재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7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5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16개이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9개에서 37개로 8개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3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고,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26개에서 16개로 감소하였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은 첫째, 기존에 활용했었던 자료의 조사가 최근 연도에 다시 수행되어 가장 최근 연도로 업데이트 한 경우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자료로서 2020년도 인구센서스 (The 2020 Population Census), 여성생애경험에 대한 전국 조사 (National Survey on Women's Life Experience), 국제 자료로 UN 세계인구전망, World Bank의 출산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업데이트하였다. 둘째, 기존에 활용했던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한 경우이다. 인도네시아 인구보건조사(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새로운 데이터 원천을 발굴하여 조사한 것으로 밀집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부족한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경제사회조사(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자료를 활용한 것이 해당된다.

자료가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 유형 (법적 혼인 부모, 사실혼 부모, 한부모, 기타 등),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 관련 지표, 궁극적으로 의도한 자녀 수, 혼외 출산 자녀, 과거 혼인 유형별 혼인 비중, 사실혼 동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조사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업데이트하지 못한 경우로, 국내 자료로 2017년도 인도네시아 인구보건조사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2014년 인도네시아 가족생활조사(The 2014 Indonesian Family Life Survey), 2006년과 2011년 전국경제사회조사(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06, 2011), 외국 자료로 혼인 및 인구 관련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한 경우이다. 오래된 과거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경우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

### 제3절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1. 한국

한국은 지난해 연구에서 31개 표와 도표에 대해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으며, 19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고, 46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연구에서 35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두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으며, 10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였고, 51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에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지표는 31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1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44개이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 수는 변화하지 않았고, 부분적

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9개에서 21개로 증가하였으며,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46개에서 44개로 축소되었다.

자료 업데이트가 가능했던 것은 해당 표와 도표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가 새롭게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 2022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2021년도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조사,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1년 사회통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지표의 표와 도표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였다. 국제 데이터베이스로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의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업데이트하였다.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이유로 조사 자료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4년마다 수행되는 조사로서 2019년도가 최신의 자료이며 2023년도에 새로운 연도의 조사 자료가 제공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자료를 갱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전국 조사의 조사 항목과 데이터 제공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지표의 표와 도표는 자료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관련된 조사 자료가 없어서 자료 구축이 어려운 지표에는 부모의 근로 유형별 아동 비중,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률,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상태별 모성 고용률, 혼인 유형별 모성 고용률, 성별 및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률, 유자녀 부모의 종일제 및 시간제 고용률을 들 수 있다.

## 2. 중국

작년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41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7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8개이었다. 올해 연구에서 모든 자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표와 도표는 5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된 표와 도표는 5개,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못한 표와 도표는 86개이었다.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에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40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0개,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6개가 되었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41개에서 40개로 감소하였고,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7개에서 30개로 증가하였으며, 자

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28개에서 26개로 감소하였다.

업데이트에 활용한 자료는 국가 인구 1% 샘플 조사, World Bank의 2021년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Value Survey, Gallup 2015년도 세계 조사 자료이다.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과 관련하여 작년도 연구까지 갱신된 표와 도표들은 대부분 2019년도 중국 사회 조사(China Social Survey)와 2010년 중국 여성 사회 지위 조사(Chinese Women's Social Status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 내용들이다. 중국 부분 연구 책임자가 변경된 올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후속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 자료들을 이용하여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자료 접근이 어려워서인지, 과거 연구 책임자와 2022년도 연구 책임자 간의 분석 방법론과 자료 신뢰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3. 몽골

몽골은 작년도 연구에서 37개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으며, 43개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고, 16개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하여 14개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고, 16개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66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 데이터 제공 현황은 2021년도와 동일하다.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은 2021년도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도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 주기별 고용률,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근로 시간 관련 지표를 업데이트하였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은 2021년도 노동력 조사를 활용하여 아직 분석하지 않은 지표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들에는 부모의 취업 상태별 아동 비중과 모성 고용 관련 지표가 포함된다. 향후 2021년도 노동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들은 업데이트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해당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자

료가 부재하기 때문이었다.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지표,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상태별 모성 고용률, 자녀 돌봄 시간, 세부 집단별 삶에 대한 만족도(청소년, 취업 유무별, 일가정양립 만족도별)과 관련한 지표들은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조사 자료가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황이다.

####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난 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된 표와 도표는 13개였으며,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4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69개였다. 올해 연구에서 16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업데이트하였으며, 17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를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하였고, 63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 현재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3개에서 16개로 확대되었으며,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4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고,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69개에서 63개로 축소되었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은 싱가포르 인력부의 「싱가포르 노동력」의 2021년도 자료와 2022년도 사전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부분이었다. 외국 자료로 2022년도 「World Happiness Report」, 2020년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한 부분도 포함된다. 동 자료들을 이용하여 생애주기별 고용률,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성과에서 성별 격차, 근로 시간 관련 지표, 주관적인 웰빙 지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지표들은 부모의 근로 유형별 아동 비중,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률, 혼인 유형별 모성 고용률, 유자녀 부모의 종일제 및 시간제 고용률, 가족친화 근로관행, 근로·돌봄·가사 노동 시간, 출퇴근시간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자료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태국

태국은 작년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31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2개,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가 53개였다. 올해 연구에서 19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고, 19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58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가 갱신되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 현재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1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2개,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53개이다. 2023년도 자료 제공 현황은 2021년도와 동일하다.

2022년도에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은 2021년도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를 활용하여 자료를 갱신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World Value Survey 2020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지표의 자료를 갱신하였다. 2015년도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와 2017년도 이민조사(Migration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갱신한 지표도 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그동안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던 모성 고용율의 기본적인 지표를 베트남 예산부(Bureau of the Budget)의 2020년도 “태국 예산 요약(Thailand’s Budget in Brief)” 자료를 가지고 갱신한 점이다.

성별 및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률, 혼인 유형별 모성 고용률, 유자녀 부모의 종일제 및 시간제 고용률, 자녀 돌봄 시간 등과 관련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여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은 태국에서 아직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구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아태지역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데이터 구축 작업을 시작해 왔다. 따라서 자료 분석을 위해 가용한 자료는 거의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지표들은 해당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조사 자료 혹은 관련 정책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 6. 베트남

베트남은 작년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3개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6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67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14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를 갱신하였으며, 16개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갱신하였고, 66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4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9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63개이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개 증가하였고,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개 증가하였으며,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67개에서 63개로 감소하였다.

2021년도에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못했던 15세 이상 삶의 만족도 지표가 갱신되었다. 2020년 베트남 가계생활조사(VLHSS)와 2021년 베트남 노동력조사(Vietnam Labor Force Survey)의 새로운 자료가 구축되어 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지표의 갱신이 가능했다. 베트남 가계 생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취업 상태별 아동 비중, 모성 고용률, 출퇴근시간 관련 지표들이 부분적으로 갱신되었다. 베트남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취업률, 근로시간 관련 지표들이 갱신되었다. 또한 2020년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 관련 지표들이 갱신되었다.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못한 것은 분석이 가능한 기초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었다.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률, 혼인 유형별 모성 고용률, 부모 유형별 근로 시간, 근로·돌봄·가사 노동 시간 관련 표와 도표들은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표들이다. 또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표와 도표들은 베트남에서 가족친화제도가 아직 발달하지 못해 해당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갱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7. 말레이시아

작년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8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85개이었다. 올해 연구에서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12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11개의 표와 도표는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되었고, 73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2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2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72개이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고,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8개에서 12개로 증가하였으며,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85개에서 72개로 감소하였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은 2021년도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와 봉급과 임금 조사(Salary and Wag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한 것이었다. 생애 주기별 고용,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표와 도표들이 2021년도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갱신되었다. 임금의 성별 격차 관련된 표와 도표들이 2021년 봉급과 임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갱신되었다. 지난해 연구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던 주관적인 웰빙 관련 표와 도표들이 말레이시아 국내 자료인 “Human Resource net online” 및 2021년 말레이시아 행복지표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제공하였다.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들은 부모의 근로 유형별 아동 비중,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 혼인 유형별 모성 고용률, 근로·돌봄·가사 노동 시간 등과 관련한 표와 도표이다. 이러한 표와 도표들은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말레이시아에서 관련된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초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8. 인도네시아

작년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었던 표와 도표는 23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던 표와 도표는 25개,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던 표와 도표는 48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16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를 갱신하였으며, 11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갱신하였고, 69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를 갱신하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3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고,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5개로 동일하며,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48개에서 45개로 축소되었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은 「2020년 전국 노동력 조사(National Labor Force Survey)」를 활용한 것이며, ILO 사이트에서 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것을 활용하였다. 「2020년 사회경제 조사」 자료도 일부 자료 업데이트에 사용하였다. 외국 자료로는 2022년도 「World Happiness Report」 자료를 활용하여 갱신이 이루어졌다.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표들은 부모의 근로 유형별 아동 비중, 부모 유형별 근로 시간, 일가정 양립 관행 관련 지표들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자료는 인도네시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작년도 연구에서 2015년도와 2014년도 「사회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던 표와 도표들에 대해 「2020년 사회경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표와 도표들은 차년도 연구에서 「2020년 사회경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자료 갱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4절 가족과 아동 정책

### 1. 한국

가족과 아동 정책 부문에서 작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58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5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19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33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7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부분적으로 갱신되었고, 52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 결과 2023년 현재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58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6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18개로 2021년도 현황과 유사하다. 이는 한국에서 가족과 아동 정책 관련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가용한 자료는 모두 다 활용된 상태이며,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료가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지표는 한부모 정책 관련한 양육비 지급 현황 지표, 육아 휴직 사용자 수, 휴직 사용 기간, 부성 휴가 사용자 수, 보육 교육 정책 관련하여 소득 수준별·모의 교육 수준별 영아 보육 교육 시설 이용률, 주당 평균 영아 보육 교육 시설 이용 시간, 아동 연령별·소득 분위별·부모 교육 수준별 비공식 보육 서비스 이용률과 평균 이용 시간, 주당 평균 방과후 교실 이용 시간, 소득 분위별·모의 교육 수준별 방과후 교실 이용 현황이다.

한부모 정책, 육아 휴직 정책,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방과후 교실 정책은 한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정책 추진을 평가할 수 있는 해당 지표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수집이 요청된다. 특히 영유아 보육 서비스 관련 지표들은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를 공개하여 자료 분석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전국보육실태조사」의 보고서 작성시 OECD FD에 있는 영유아 보육 교육 관련 정책 지표를 분석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중국

가족과 아동 정책 부문에서 작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5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8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59개이었다. 올해 연구에서 자료 업데이트를 하여 4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1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부분적으로 갱신되었고, 87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 결과 2023년 현재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5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8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59개로 2021년도 현황과 동일하다.

가족과 아동 정책에서 자료 갱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가능한 유급 휴가 제도, 유급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기간, 보육 교육 시설에서 아동 대 교사 비중과 관련한 5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만 갱신이 이루어졌다. 가족과 아동 정책 부문에서 중국 자료는 많이 제공되지 않았다. 작년도 연구까지 제공이 이루어진 자료들은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가족 급여, 아동 지원 정책,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전하는 연령, 아동 체벌 관련 법령, 육아 휴직 제도, 육아 휴직 급여와 같은 제도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이었다. 기존에 제공한 정책 내용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책 내용과 관련한 표와 도표를 제외하고 정책의 실태와 관련한 표와 도표들 - 예를 들어 가족 급여 수급률,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양육비 지급 액수, 육아 휴직 수급자 수, 육아 휴직 급여 액수, 비공식 보육 서비스, 보육 비용, 방과후 보육 실태와 관련한 표와 도표들의 자료는 여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한 OECD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들, 예를 들면 Tax-Benefit System 관련 표와 도표,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 세대간 연대와 관련한 자료들은 제공하지 못했다.

### 3. 몽골

작년 연구에서 모든 자료 제공이 가능했던 표와 도표는 15개, 부분적으로 자료 제공이 가능했던 표와 도표는 10개, 자료 제공이 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67개였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4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으며, 5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였고, 83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3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5개로서 2021년도와 동일하며,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1개로 2021년도의 10개와 비교하여 1개가 증가하였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66개로 2021년도의 67개와 비교하여 1개 감소하였다. 따라서 2023년도의 자료 제공 현황은 2021년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연구에서 몽골의 자료 갱신은 작년도 연구를 통해 제공했던 자료를 최신 자료로 갱신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제공되지 못했던 표와 도표에 대한 새로운 자료 제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에서 가족과 아동 정책 관련 지표에 대해서 이미 가용한 자료는 확인된 상태이며 자료 제공이 어려운 표와 도표들은 몽골에서 자료 생산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표와 도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서 상당히 높다. 하지만 가족 정책은 어느 정도 몽골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금 지원,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모성 휴가 및 부성 휴가 관련하여 정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지표들은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해당 정책들이 몽골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정책 수행 현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가족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다.

OECD FD의 지표들은 가족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몽골의 가족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OECD FD는 유용한 평가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OECD FD 지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몽골에서 마련하여 몽골의 가족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4. 싱가포르

작년도 연구를 통해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3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4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69개였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16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17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료 갱신이 이루어졌고, 63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2년도 자료 갱신 결과,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21년 13개에서 2022년에 16개로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4개에서 17개로 증가하였으며,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69개에서 63개로 감소하였다.

싱가포르는 작년도 연구까지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던 표와 도표에 대한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었다는 성과를 보였다. 가족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 아동기에서 성년으로 이전되는 법적 연령, 육아 휴직,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아동 보호 등에서 지난해 연구까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싱가포르 재정부, 인력부, 사회가족개발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자료, 싱가포르 법령, 싱가포르 법령 어드바이스, 싱가포르 통계청, 영아 개발 위원회 등의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였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지표들은 가족 유형별, 소득별, 막내 자녀 연령별, 자녀 수 별 가족 급여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의 지표들, Tax-Benefit 자료,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 자녀 출산 후 혹은 육아 휴직 후 평준화 소득 등 OECD가 직접 분석하는 지표들, 그리고 보육 시설 이용률, 비공식 보육 관련 지표, 아동 대 교사 비율, 방과후 학교 관련 지표 등 정책 현황에 대한 지표들이다.

#### 5. 태국

태국은 작년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8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10개,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가 64개였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서 8개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고, 9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75개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다. 2023년도 자료 제공 현황은 2021년도 현황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작년도 연구에 연이어 올해 연구에서도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교육비 지출 및 가족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의 일부 지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연령, 아동 체벌 금지 법령, 여성이 사용 가능한 유급 휴직 제도, 유급 출산 전후 휴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0~2세 보육 시설 이용률, 3~5세 보육 교육 시설 이용률, 보육 서비스 제공 체계 등이다. 작년도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으나 올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된 표와 도표들은 가족 급여와 교육비 지출의 일부 지표, 출산 전후 휴직 기간, 보육교육비 지출, 0~2세 보육 시설 이용률이다. 2021년도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2022년도에 새롭게 자료가 제공된 지표들은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 휴직, 어머니에게 할당된 육아 휴직이다.

한편 작년도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들은 Tax-Benefit System 관련 자료, 양육비 지급 관련 지표,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 세대간 결속, 아동 보호 관련 지표, 육아 휴직 관련 일부 지표, 육아 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보육 시설 이용률, 비공식 보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의 질, 방과후 보육 관련 지표들이다.

## 6. 베트남

작년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었던 표와 도표는 20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던 표와 도표는 5개,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던 표와 도표는 67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5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13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되었고, 74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1년과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에서 23개로 3개 증가하였으며,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67개에서 64개로 축소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에 자료가 제공되었던 표와 도표 중심으로 자료 갱신이 이루어졌다. 갱신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법령으로 제도 내용이 업데이트된 부분이었다. 이러한 법령에는 결혼과 가족법, 사회보험법, 교육법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교육부 자료를 활용하여 갱신하였으며, 가족 급여 및 교육의 공공 지출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를 활용하여 갱신하였다. 기존에 자료가 제공되었으나 올해 연구에서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령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었다.

자료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OECD 사무국이 직접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Tax-Benefit System, 자녀 연령별 공공 지출, 세대 간 결속, 육아 휴직 소득 대체율, 자녀 보육비 지출 등에 대한 자료는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가족 유형별, 자녀 유형별 현금 급여,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 등록률, 비공식 보육, 보육 서비스의 질, 방과후 보육 관련 지표 등 정책 현황과 관련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7. 말레이시아

작년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6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4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표와 도표는 82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21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6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되었고, 65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되지 않았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6개에서 23개로 확대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4개에서 8개로 증가하였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82개에서 61개로 축소되었다.

자료 갱신이 이루어진 표와 도표는 가족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전하는 연령,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와 규제, 육아 휴직 제도 관련 사항, 휴가 관련 법령,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율, 출산 전후 유급 휴가 기간, 부성 휴가 기간,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보육 서비스 체계, 아동 대 교사 비중, 보육 교사 자격 관련 사항이다. 자료 갱신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공공 지출 자료의 경우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2016-2020)에 포함된 「2021년도 연간 예산」, 관련 법령 자료로 「성년법 (The Age of Majority Act)」, 「고용법 (Employment Act)」, 「보

육시설법 (Childcare Center Act)」, 「기혼 여성과 아동 지원법 (Married Women and Children Maintenance Act)」, 「혼인과 이혼법」 등을 참고하였다. 영유아 보육 교육 관련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부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내부에서 수행된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sup>2)</sup>.

작년도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에서도 자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표와 도표들은 OECD가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Tax-Benefit System,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 세대간 결속, 자녀 출산 후 및 육아 휴직 후 동등화 소득이다. 또한 보육 시설 등록률, 비공식 보육 서비스, 자녀 보육비 지출, 방과후 보육 등 보육 제도 현황과 관련한 자료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 8. 인도네시아

작년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었던 표와 도표는 15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던 표와 도표는 8개,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던 표와 도표는 69개였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14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15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되었고, 63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2021년과 비교하여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5개에서 25개로 10개 확대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8개에서 18개로 10개 증가하였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69개에서 49개로 10개 감소하였다.

자료가 갱신된 부분은 작년도 연구까지 자료가 제공되지 않다가 올해 연구에서 새롭게 자료가 추가된 부분과, 작년도 연구에서 제공되었던 자료이면서 올해 연구에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새롭게 자료가 추가된 부분은 아동 보호 관련 지표, 육아 휴직 정책 관련 지표, 아동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 등록률, 영유아 보육 교육 교사 최소 자격 기준,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 부분이다. 작년

2) 이러한 연구물에는 Narasappa Kumaraswamy, Azizah Othman, (2011) "Corporal Punishment Study: A Case in Malaysia" Psychology, Vol.2 No.1., RAHMATULLAH et al. (2021) "Overview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Malaysia", Ting, M. L (2018) Master's thesis 가 있다.

연구에서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올해 연구에서 자료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은 육아 휴직 정책 관련 내용,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 보육 서비스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OECD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지표로 Tax-Benefit System,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 세대간 결속, 육아 휴직 사용자 등이 있으며, 가족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 비공식 보육, 보육 서비스 비용, 방과후 보육 등 정책 현황과 관련한 지표들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 제5절 아동의 성과

### 1. 한국

작년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57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3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13개였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 결과, 21개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11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61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의 결과, 2023년도에 자료가 모두 제공이 가능한 표와 도표는 57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3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13개로 2021년도의 현황과 동일하다.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표와 도표들은 지속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표와 도표들은 자료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 이는 해당 표와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한국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일 가능성도 있다.

기본적인 아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세부 집단별로 구분한 상세한 내용의 지표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성별·가족 영향력별 11~15세 과체중 및 비만, BMI 수치가 누락된 데이터, 아동의 장애 상태별 가구 빈곤율, 가족 유형별 상대 가처분소득, 가구채 및 오락 접근성에 기초한 물질적 박탈, 학습을 위한 가구 재원별 읽기 성취도 점수, 내국인 및 외국인 NEET 비율,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한 이민자와 비이민자 학



생 간의 읽기 성취도 차이, 15세 성별 카나비 흡연율, 성별·가족 영향력별 11~15세 음주 경험, 성별·가족 영향력별 15세 카나비 흡연율 등

## 2. 중국

작년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0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6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37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을 통해 10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모두 갱신되었으며, 14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부분적으로 갱신되었고, 69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 결과,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8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9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36개이다. 따라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21년도 30개에서 2022년도에 28개로 축소되었고,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6개에서 29개로 확대되었다.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줄어든 것은 지난 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던 일부의 표와 도표가 올해 자료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021년도 37개에서 2022년도 36개로 1개 감소하였다. 이는 해당 표와 도표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갱신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영아 사망률, 출생시 기대여명, 예방접종률, 소득 불평등도의 일부 지표, 성별·연령별 중등 교육 이상 학력자 비중, 성별·연령별 대학 학력 이상 비중, 청년 자살률, 기관 활동 참여 청년 비중, 종교 활동 참여 청년 비중,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 비중이다.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과제중 및 비만 관련 지표, 정기적인 흡연자 비중, 아동 장애, 물질적 박탈 관련 지표, 대학 전공의 성별 격차, 10세의 성별 문해율, NEET 관련 지표, 투표 참여, 음주와 대마초 흡연 관련 사항들이다.

### 3. 몽골

작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7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56개였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7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가 모두 업데이트되었으며, 12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가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74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가 갱신되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 결과, 2023년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8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9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56개이다. 2023년도 자료 제공 현황은 2021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지표들은 영유아 사망률, 출생 시 기대여명, 저체중, 예방접종률, 모유 수유율, 대학 졸업자 전공의 성별 격차이다.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청소년 흡연율, 장애 아동, 가족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및 소득 지위, 아동 빈곤, NEET, 투표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년도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를 통해서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아동 당뇨병 및 천식 유병률, 과체중 및 비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물질적 박탈, 성별 학력 격차, 10세 성별 문해율, 15세 성별 문해율, 이민 학생 비중 및 교육 성과, 자원봉사 및 NGO 활동 참여, 음주 및 카나비 흡연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다.

### 4. 싱가포르

작년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2개,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2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49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28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19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되었고, 46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 결과, 모두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작년도 연구와 비교하여 32개에서 2023년도에 41개로 확대되었다.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2개에서 21개로 확대되었다.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49개에서 31개로 축소되었다.

작년 연구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다가 올해 연구를 통해 자료가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제공된 표와 도표들은 모유 수유율, 과체중 비만, 장애 아동, 가족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및 소득 지위, 10세 문해율, NEET, 자원봉사 활동참여, 청소년 자살 관련 내용이다. 작년도 연구와 올해 연구까지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지표들은 영유아 사망률, 출생시 기대여명, 예방접종, 당뇨병 및 천식 유병률, 대학교 전공의 성별 격차, 10세 문해율, 15세 문해율, 이민자 학생 및 교육 성과, 자원봉사 활동 및 NGO 활동 참여, 청소년 자살률 관련 표와 도표들이다.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모유 수유율, 과체중과 비만, 장애 아동, 소득 불평등도, 성별 학력 격차, NEET, 투표 참여이다.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아동 빈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물질적 박탈, 음주 및 카나비 흡연 관련 내용들이다.

## 5. 태국

작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0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0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33개이었다. 올해 연구를 통해 20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17개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가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56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다.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 결과, 2023년 현재 37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30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26개의 지표에 대해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에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가 30개에서 37개로 7개 확대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의 수는 동일하고,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33개에서 26개로 7개 감소하였다.

작년도 연구에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올해 연구의 자료 갱신으로 새롭게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표들은 아동 당뇨병 및 천식 유병률이며,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 흡연, 10세 성별 문해율,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표들과 관련한 일부 표와 도표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었다.

작년도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지표는 아동 사망률, 출생 시 기대여명, 저체중아, 예방접종률, 모유 수유이다. 그리고 모든 표와 도표에 대해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표와 도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지표들은 장애 아동, 가족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및 소득 지위, 성별 교육 성과, 대학교 전공의 성별 격차, 15세 성별 문해율, NEET, 이민자 학생 비중 및 교육 성과, 자원봉사 활동, 투표 참여, 청소년 자살 등이다.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은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 흡연, 장애 아동 가정의 빈곤율 및 가족 급여, 아동 빈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물질적 박탈, 부모의 특성별 교육 성취도, 10세 성별 문해율, 음주 및 카나비 흡연이다.

## 6. 베트남

작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6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9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38개이었다. 2022년도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13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갱신되었으며, 20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되었고, 60개의 표와 도표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3년도 자료 제공 현황은 2021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올해 연구에서 자료가 갱신된 지표는 아동 사망률, 출생 시 기대여명, 저체중, 예방접종, 모유 수유, 만성 질환 혹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가족 급여, 지니 계수, 소득 불평등도, 아동 소득 빈곤율, 성별 연령별 중등 교육 비중, 성별 연령별 대학 교육 비중, NEET 관련 지표, 음주율, 청소년 자살 등이다.

작년도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표는 당뇨병 유병율, 과체중 및 비만, 성별 연령별 장애아, 상대 가처분소득, 가족 유형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 부모의 취업 유형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 자녀가 있는 가구의 물질적 박탈률, 성별 교육 수준에 대한 세부 지표 (부모의 학력별, 부모의 이민 상태별 등), 대학교 전공 분야 성별 격차, 10세 성별 문해력, 15세 성별 문해력, 이민자 학생 비중 및 교육 성취,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투표 참여율, 음주 및 카나비 흡연율, 청소년 자살률 관련 일부 표와 도표이다.

## 7. 말레이시아

지난해 연구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53개였다. 올해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갱신된 표와 도표는 19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된 표와 도표는 25개, 자료가 전혀 갱신되지 않은 표와 도표는 49개이다. 올해 연구의 업데이트 결과 현재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2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5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36개이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에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에서 32개로 12개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0개에서 25개로 5개 증가하였고,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표와 도표는 53개에서 36개로 17개 감소하였다.

작년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된 지표는 영아 사망률, 출생 시 기대여명이다. 일부 표와 도표가 갱신된 지표들은 저체중, 예방접종률, 당뇨병 및 천식 유병률, 과체중 및 비만, 소득 불평등, 아동 빈곤, 교육 성취도, 대학교 전공의 성별 격차, 10세 성별 문해율, NEET, 자원봉사 참여, 투표 참여, 음주와 카나비 흡연, 청소년 자살이다. 작년 연구까지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연구부터 새롭게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표와 도표를 포함하고 있는 지표는 저체중, 예방접종률, 당뇨병과 천식 유병률, 아동 빈곤, 성별 교육 성취, 대학교 전공의 성별 격차, 10세 성별 문해율, NEET, 자원봉사 참여, 음주와 카나비 흡연이다.

지속적으로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표는 청소년 흡연, 장애 아동, 아동 있는 가정의 물질적 박탈이며, 모유 수유, 과체중 및 비만, 소득 불평등, 아동 빈곤, 성별 교육 성취, 10세 문해율, NEET, 이민자 학생과 교육 성취, 투표 참여, 음주와 카나비 흡연에 포함된 일부 표와 도표들이다.

## 8. 인도네시아

작년도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51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3개,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9개이었다. 올해 연구의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자료가 갱신된 표와 도표는 20개, 부분적으로 자료가

갱신된 표와 도표는 18개, 자료가 갱신되지 않은 표와 도표는 55개이다.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51개에서 60개로 9개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13개에서 14개로 증가하였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29개에서 19개로 10개가 감소하였다.

작년도 연구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다가 올해 연구를 통해 자료가 제공된 지표는 장애 아동 관련 일부 표와 도표, 성별 교육 성취 관련 일부 표와 도표이다. 2021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아동 사망률, 출생 시 기대여명이다. 일부의 표와 도표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표와 도표는 예방접종률, 당뇨병 및 천식 유병률, 소득 불평등도, 아동 빈곤, 성별 교육 성취, NEET이다.

작년도 연구에 이어서 올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표와 도표는 성별 및 가족 영향력별 과체중과 비만, 아동 장애 유형별 빈곤율, 가족 유형별 상대가처분소득의 시계열 자료, 가족 유형별 및 부모의 취업 상태별 빈곤율 시계열 자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 박탈, 부모의 이민 상태별 교육 성취, 국내 및 외국 출신 NEET, 이민 경험 유무별 읽기 능력 격차, 성별 및 연령별 투표 격차, 성별 및 가족 영향력별 청소년 음주 경험, 성별 및 가족 영향력별 청소년 카나비 흡연이다.

## 제6절 소결

올해 사업을 통해 각 국가의 가족 자료가 업데이트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지표의 표와 도표 중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된 갯수와 업데이트된 표와 도표가 전체 표와 도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가족의 구조 부문은 한국 45개 (66%), 중국 27개(40%), 몽골 25개 (37%), 싱가포르 42개 (62%), 태국 20개 (29%), 베트남 24개 (35%), 말레이시아 57개 (40%), 인도네시아 29개 (43%) 이다.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부문은 한국 45개 (47%), 중국 10개 (10%), 몽골 30개 (31%), 싱가포르 33개 (34%), 태국 38개 (40%), 베트남 30개 (31%), 말레이시아 23개 (24%), 인도네시아 27개 (28%) 이다. 가족과 아동 정책은 한국 40개 (43%), 중국 5개 (5%), 몽골 9개 (10%), 싱가포르 39개 (42%), 태국 7개 (18%), 베트남 18개 (20%), 말레이시아 27개 (29%), 인도네시아 29개 (32%) 이다. 아동의 성과는 한국 32개

(34%), 중국 24개 (26%), 몽골 19개 (20%), 싱가포르 47개 (51%), 태국 37개 (40%), 베트남 33개 (35%), 말레이시아 44개 (47%), 인도네시아 38개 (41%) 이다.

자료가 업데이트된 경우는 기존에 활용했던 전국적인 조사 자료가 새롭게 수행되어 최근 연도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각 국가가 2020년 시점에서 수행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것이 이에 해당 된다. 그리고 전년도 연구에서 가용한 자료였으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지 못했고, 올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작년 연구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다가 올해 연구에서 새로운 조사 자료원을 발굴하여 자료를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한 표와 도표들도 있다. 태국은 태국 예산부 자료를 입수하여 모성 고용률 관련 지표의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인 웰빙과 관련된 표와 도표의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가 가족의 구조와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부문에서 자료 업데이트에 활용한 신규 조사 자료들은 아래 표와 같다. 이러한 조사 자료들은 향후에서 지속적인 신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된 표와 도표의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아태지역 2022-23년도 가족데이터베이스 갱신에 활용한 조사 자료: 가족의 구조

구분	국가	조사명
가족의 구조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인구센서스</li> <li>• 2021년 인구동향</li> <li>• 2022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중국 인구 및 고용 통계</li> <li>• 2020년 중국 민정부 통계집</li> <li>• 2019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li> <li>• 2021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li> <li>• 2019년 UN World Fertility data</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국립 통계국 통계 연보 및 인구 통계</li> <li>• 2021년 공공보건통계</li> <li>• 2021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싱가포르 영주권자 가구 통계, 출생 및 사망 등록 자료, 혼인과 이혼 통계 자료</li> <li>• 2022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li> <li>• 2020년 World Value Survey</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고용조사</li> <li>• 2022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인구센서스</li> <li>• 2021년 Institute of Sociology 조사</li> <li>• 2021년 법무부 자료</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인구센서스</li> <li>• 2022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li> <li>• 2022년 인구 동향 자료, 혼인 및 이혼 통계</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인구센서스</li> <li>• 2020년 여성 생애 경험에 대한 전국 조사</li> <li>• 2022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li> <li>• 2021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li> </ul>



&lt;표 2-6&gt; 아태지역 2022-23년도 가족데이터베이스 갱신에 활용한 조사 자료: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구분	국가	조사명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li> <li>•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li> <li>• 2020년 일가정양립조사</li> <li>•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li> <li>• 2021년 사회통합조사</li> <li>•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인구 1% 샘플 조사</li> <li>• 2021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li> <li>• 2021년 World Value Survey</li> <li>• 2015년 Gallup 세계 조사</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노동력 조사</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2022년 싱가포르 노동력</li> <li>• 2022년 World Happiness Report</li> <li>• 2020년 World Value Survey</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노동력 조사</li> <li>• 2020년 World Value Survey</li> <li>• 2015년 생활시간조사</li> <li>• 2017년 이민조사</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베트남 가계생활조사</li> <li>• 2021년 베트남 노동력조사</li> <li>• 2020년 World Value Survey</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노동력 조사</li> <li>• 2021년 봉급과 임금 조사</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전국 노동력 조사</li> <li>• 2020년 사회경제조사</li> <li>• 2020년 World Value Survey</li> </ul>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한 조사 자료가 최근 연도로 업데이트되지 못한 경우이다.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전국 조사 자료들은 2~3년에 한 번씩 새롭게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조사 자료가 새롭게 구축되면 자료의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는 4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어 2022년도에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023년 이후부터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올해 연구에는 분석이 어려웠지만 차기 연구에는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국가에 이용 가능한 자료는 있으나 해당 공공 기관이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혼외 출산 자료를 해당 부서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자료 구입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자료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보육 교육 관련 지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해당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이다. 이는 관련된 조사 자료 자체가 없거나, 관련된 조사는 있으나 해당 지표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 없는 경우이다. 아동의 가구 유형, 부모의 근로 유형별 아동의 비중 등의 지표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과 부모 근로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각 국가의 인구센서스와 노동력 조사에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관련된 상세한 조사 항목이 없다. 또한 아태지역 대부분의 인구센서스는 부부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지 혹은 동거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넷째, 해당되는 가족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경우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은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육아 휴직 제도는 도입하지 않아서 육아 휴직과 관련한 지표의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도 OECD 회원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OECD 회원 국가가 아닌 아태지역 국가들이 OECD SOCX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우 자료 제공이 가능했지만, 정책 추진 현황 지표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 시설 이용 현황, 육아 휴직 이용 현

황 등 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관련 지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책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책 내용이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경우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려웠다.

다섯째, OECD가 직접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지표의 경우, 각 국가의 연구자들이 자료 분석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OECD Tax-Benefit System에 포함된 자료의 경우 분석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해당 국가의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기 어려웠다.

<표 2-7> 각 영역별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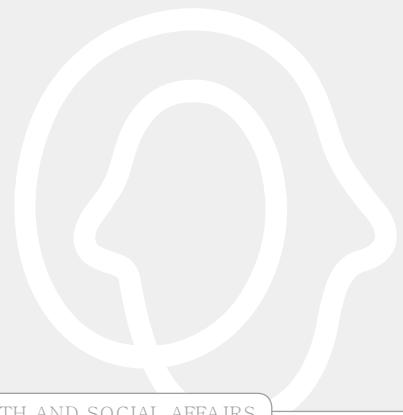
영역	지표명
가족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있는 가구 유형</li> <li>• 혼외 출산</li> <li>• 밀집된 가구 혹은 환경 위험이 있는 지역 거주 아동</li> <li>• 이상 자녀 수</li> <li>• 무자녀</li> <li>• 과거 혼인 유형별 혼인 비중</li> <li>• 가족 해체</li> <li>• 동거 현황</li> <li>• 가족 폭력</li> </ul>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근로 유형별 아동 비중</li> <li>•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률</li> <li>• 산전후 휴가 혹은 육아 휴직 상태별 모성 고용률</li> <li>• 혼인 유형별 모성 고용률</li> <li>• 성별 및 교육 수준별 모성 고용률</li> <li>• 유자녀 부모의 종일제 및 시간제 고용률</li> <li>• 근로·돌봄·가사 노동 시간</li> <li>• 세부 집단별 삶에 대한 만족도</li> </ul>
가족과 아동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li> <li>• 양육비 지급 현황</li> <li>• 육아 휴직 관련 상세 지표</li> <li>•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li> <li>• 소득 수준별·모의 교육 수준별 영아 보육 교육 시설 이용률</li> <li>• 주당 평균 영아 보육 교육 시설 이용 시간</li> <li>• 자녀 보육비 지출</li> <li>• 비공식 보육 서비스</li> <li>• 방과후 교실</li> </ul>
아동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체중 및 비만</li> <li>• 아동 장애</li> <li>• 아동 빈곤의 상세 지표 (가족 유형별·부모 취업유형별· 장애 유무별 등)</li> <li>•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li> <li>• 물질적 박탈 상태</li> <li>• 대학 전공자의 성별 격차</li> <li>• 읽기 성취도 상세 지표</li> <li>• NEET 관련 지표</li> <li>• 투표 참여</li> <li>• 정기적 흡연자, 카나비 흡연, 음주 경험</li> </ul>

각 국가별로 2021년도 자료 제공 현황과 2023년 자료 제공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국가의 연구 책임자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자료 업데이트가 늦어졌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지표 수가 증가하였다.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된 지표 수의 2021년과 2023년 변화를 살펴 보면, 가족의 구조 부문에서 싱가포르 43개에서 48개 (5개 증가), 말레이시아 30개에서 38개 (8개 증가), 인도네시아 42개에서 52개 (10개 증가)를 보였다.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부문은 싱가포르 27개에서 33개 (6개 증가), 말레이시아 11개에서 24개 (13개 증가), 인도네시아 48개에서 51개 (3개 증가)를 보였다. 가족과 아동 정책 부문에서 싱가포르 13개에서 40개 (37개 증가), 말레이시아 10개에서 31개 (21개 증가), 인도네시아 23개에서 43개 (20개 증가)가 되었다. 아동 성과 부문에서 싱가포르 44개에서 62개 (18개 증가), 말레이시아 40개에서 57개 (17개 증가), 인도네시아 64개에서 74개 (10개 증가) 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했던 국가인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작년도 연구에서 상당 수준 자료 구축이 이루어진 몽골의 경우 2021년도 자료 제공 현황과 2023년도 자료 제공 현황에 큰 차이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에서 가용한 자료원은 모두 찾아 본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OECD FD의 지표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조사 체계 및 조사 분석 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게 추가적인 지표에 대한 자료 생산은 제한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대규모 전국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미 확립되어 있는 조사 항목과 조사 체계를 OECD FD의 지표에 맞게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자국 내 가족 관련 자료를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과 문화를 감안해 볼 때 국제적으로 비교가 필요한 필수적인 지표를 제외하고 유럽 국가 중심으로 설계된 OECD FD의 지표 체계를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가족의 유형과 가족 구조의 경우 각 국가의 고유한 가족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유럽 국가 가족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구축된 OECD FD의 가족 구조 관련 지표가 아시아적 특수성에 맞는 지표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연구자가 자료를 생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가 아닌 대표성이 부족한 샘플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자료 연도가 10년 이상이 지난 오래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자료 갱신으로서의 의미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초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 분석 방법론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연구 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 3 장

###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 제1절 개요
- 제2절 가족의 구조
- 제3절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제4절 가족과 아동 정책
- 제5절 소결





## 제 3 장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 제1절 개요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는 2013년에 처음으로 구축되어 OECD Family database 지표 체계에 따라 아태지역의 비 OECD 회원 국가를 중심으로 가족 자료를 수집해 왔다. 그동안의 노력에 따라 참여 국가가 중국, 몽골,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확대되었고, 아태지역 가족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아태지역 국가들을 OECD FD와는 다른 지표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자료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어서 OECD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아직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지표의 정의와 이용 자료의 특성을 검토하고 아태지역 가족 자료의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가족 자료는 각 국가의 가족 자료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를 활성화하여 인구 변동 및 가족 변화에 각 국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21)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21 Project Report」에서 분석한 지표 중에서 가족의 구조,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가족과 아동 정책에 해당되는 14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한다(<표 3-1>). 각 지표에 대해 OECD가 내린 정의와 각 국가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한 정의를 비교한다. 또한 자료를 생산할 때 각 국가가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각의 지표에 대해 각 국가가 OECD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아태지역 가족 DB 워크숍」을 수행하여 각 지표별 정의와 자료 분석 시 활용한 자료

그리고 자료 수집 시 직면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국가가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3-2>). 발표에 참석한 국가는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이었다. 본 장에서는 동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과 논의 사항을 정리하고 아태지역 가족 자료의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과 가족 자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표 3-1>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분석에 활용된 지표

구분	지표명
가족의 구조	SF1.1.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youth dependency ratio
	SF2.1. Fertility rates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
	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지위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 time workers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LMF2.1: Usual working hours per week by gender
가족과 아동 정책	PF1.3. Family cash benefits
	PF2.1.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systems
	PF1.4.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education services

&lt;표 3-2&gt; 아태지역 가족 DB 워크숍 일정 및 발표자와 토론자

국가명 (일시)	발표자	토론자
한국 (2023.8.31)	신윤정	Dang Nguyen Anh (베트남)
말레이시아 (2023. 10. 14)	Sharifah Azizah Haron	Truc Ngoc Hoang Dang (태국)
몽골 (2023. 11. 18)	Enkhtsetseg Byambaa	Puguh Prasetyoutr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23.11.23.)	Puguh Prasetyoutra	Sharifah Azizah Haron (말레이시아) Truc Ngoc Hoang Dang (태국)
태국 (2023. 12.6)	Truc Ngoc Hoang Dang	Enkhtsetseg Byambaa (몽골)

## 제2절 가족의 구조

### 1. SF1.1.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SF1.1 가족 규모와 가구 구성”에서 주요한 정의는 “부부 가구(couple household),” “한부모 가구(single-parent households),” “1인 가구(single-person households),” “기타 가구(other household types)”이다.

OECD는 부부가구를 “두 명의 파트너 관계를 가진 성인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이들은 법적 혼인, 등록된 커플 혹은 동거혼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부부 가구는 자녀를 두거나 두지 않고 있을 수 있다. 한부모 가구는 부모 중 1명과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이다. 1인 가구는 1명의 성인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기타 가구는 다른 모든 유형의 가구를 말한다. 자녀는 25세 미만의 함께 거주하는 부양 자녀이다.

한국은 인구총조사의 가구 유형에 따라 가구 구성을 정의하였다. 부부 가구를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부부는 사실혼 관계를 가진 남녀를 말하며 법적인 혼인 관계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미혼자녀의 연령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부모 가구는 부와 미혼자녀, 혹은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를 따를 경우 법적 한부모와 함께 주거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1인 가구는 1인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인구센서스에 정의된 바를 따랐다. 기타 가구는 상기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

로서 조부모와 거주하는 3세대 가구가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의 인구센서스는 가족을 법적 체계 및 종교적 신앙 하에서 혈연, 혼인, 혹은 입양으로 연결된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의 유형은 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1유형은 1인 가구, 제2유형은 가구주와 가구주와 관련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제3유형은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 제4유형은 가구주, 배우자,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제5유형은 한부모(사별/이혼/별거)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제7, 8, 9 유형은 핵가족과 부모, 미혼자녀, 다른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말레이시아는 부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합하여 핵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어(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부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분리하여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인 가구는 1유형으로 정의하며, 기타 가구는 2, 7, 8, 9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녀는 아동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몽골은 부부가구를 두 명의 성인 파트너로 구성된 가구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동거 부부도 포함하고 있다. 부부 가구는 자녀를 두고 있을 수도 있고 두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한부모 가구는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혼, 이혼, 별거, 사별한 사람들이다. 자녀는 생물학적 자녀, 의붓자녀, 입양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다. 1인 가구는 성인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기타 가구는 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다른 유형의 가구이다. OECD가 동거 자녀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몽골에서는 18세 미만의 함께 거주하는 미혼의 부양 자녀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가구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부재하여 「2020년 전국 사회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구조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조사 자료를 통해서 부양 자녀 등 OECD의 정의에 따라 가구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부부 가구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로서 자녀를 두거나 두지 않고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부부 가구는 실제로 확대 가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이러한 부부 가구에 확대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태국은 부부 가구를 법적으로 혼인하거나 동거 관계에 있는 성인으로 자녀를 두거나 두지 않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한부모 가구는 부모 중 일방(편부 혹은 편모)이 한명 이상의 자녀와 거주하는 가구로 보았다. 1인 가구는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기타 가구에는 조손 가구, 3세대 가구, 서로 다른 세대와 부부가 동일한 가구

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보았다. 부양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는 모든 비혼 자녀로서 생물학적 자녀, 의붓 자녀, 입양 자녀로 구분하기 어렵다. 부부는 법적 혼인 부부와 동거 부부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다. 이용 자료로 2021년도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3-3> SF1.1.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 Statis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0
말레이시아	•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ousehold Characteristics (2000, 2010)
몽골	•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인도네시아	• Statistics Indonesia, The 2020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태국	• Labour Force Survey 2021

## 2.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youth dependency ratio

“SF1.4.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청년부양비”에서 주요한 정의는 “0~24세 추계 인구,” “0~24세 아동 및 청소년의 인구 비중,” “청년 부양비”이다. OECD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 UN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0~24세 추계 인구”는 “0~14세 인구”와 “15~24세 인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0~24세 아동 및 청소년의 인구 비중”은 5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청년 부양비”는 20~44세 근로 연령 인구에서 0~20세의 아동 및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모두 동 자료를 UN 인구국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을 활용하고 있으며 UN의 정의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인구,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인구 분포, 청년 부양비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자료인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얻고 있다. 국제 기구인 UN이 추계한 인구 자료와 각 국가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국제 기구 자료와 국내 센서스 자료 중에서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

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3-4>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youth dependency ratio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말레이시아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몽골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인도네시아	• Statistics Indonesia, The 2022 Population Census
태국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3. SF2.1 Fertility rates

“SF2.1. 출산율”에서 주요한 정의는 합계 출산율과 완결코호트출산율이다. OECD는 합계출산율을 “현재 주어진 연령별 출산율 하에서 가임기 동안 여성 1명당 낳는 평균 자녀 수,” 완결코호트출산율을 “특정 코호트 여성이 전체 가임기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통계청 인구동태 출산 자료를 활용하여 OECD 정의에 따라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고 있다. 완결코호트출산율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연령이 될 때까지 낳은 평균 자녀 수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통계부가 인구동태 자료를 활용하여 OECD의 정의에 부합하는 합계출산율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통계부는 완결코호트출산율 산출하여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몽골의 통계국은 연간 통계 연보에서 OECD 정의에 부합하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완결코호트출산율은 가임기간동안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제공하는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몽골 통계국은 「재생산 보건 조사 (Reproductive Health Survey:RHS)」를 통해 45-49세 여성들의 가임기간 동안 평균 자녀 수를 조사하고 있다. 동 조사를 통해 완결코호트출

산출 자료를 생산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동태통계 자료가 미흡하여 신뢰할만한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합계 출산율은 국제 기구의 추정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국가 인구 및 가족 계획 위원회」가 수행한 「가족자료수집(Family Data Collection)」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합계출산율 자료를 활용하였다.

태국은 보건부가 「재생산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2018년도까지 합계출산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연도 자료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합계출산율 자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합계출산율 자료를 활용하였다. 완결코호트출산율 자료는 태국 통계국이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자료를 보고하였다.

<표 3-5> SF2.1. Fertility rates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istics Korea, Vital Statistics (2022)</li> <li>• Statis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li> <li>• Statistic Korea, Population Projection: 2010-2060</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Vital Statistics (2022)</li> <li>•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Current Population Estimates (2022)</li> <li>•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Population Projection: 2010-2040</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Statisitcs Office of Mongolia, Yearly Statistics</li> <li>•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li> <li>•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Reproductive Health Database</li> <li>•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li> <li>•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li> </ul>

## 4.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SF2.3. 모의 평균 출산연령과 연령별 출산율”에서 주요한 정의는 출산 시 여성의 평균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이다.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OECD는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출산 시 여성의 연령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모든 출산의 평균 연령과 첫째 자녀 출산의 평균 연령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도에 각 연령대 여성의 1,000명당 출산 아 수로 산출하고 있다.

한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 출생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기준에 적합하게 모의 평균 출산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말레이시아 통계국의 인구 동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 자료는 UN 인구국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0」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국의 자료와 UN 인구국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은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을 UN 인구국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0」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은 몽골 통계국의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UN 인구국과 몽골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UN 「World Fertility Data」 와 「인도네시아 인구 보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 자료도 「인도네시아 인구 보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UN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태국은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2009년도 재생산 보건 조사」 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 자료는 공공보건부의 「공공보건통계」 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조사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출산율 자료는 공공보건부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고 있어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lt;표 3-6&gt;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istical Korea, Vital Statistics</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Vital Statistics, 2021</li> <li>•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0」</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0」</li> <li>• National Statistcs Office of Mongolia, Population Statistics</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onesia National Demographic and Health Dat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li> <li>• UN 「World Fertility Data」</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ailand, Reproductive Health Survey</li> <li>• Reproductive Health Survey 2009</li> </ul>

#### 5. SF2.4. Share of birhts outside of marriage

“SF2.4. 혼외 출산 비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혼외 출산이다. OECD는 혼외 출산을 아동의 부모가 혼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혼 전 출산일 수도 있고 혼인 외 출산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혼외 출산은 대부분 혼인 외 출산을 말한다. 한국은 통계청의 인구 동향 출생 자료를 이용하여 혼외 출산 비중 자료를 제공하였다.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혼외 출산은 1988년에 제정된 샤리아 형법에 따라 출생 시 혼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고, 15-19세 청소년 출산을 혼외 출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혼외 출산 비중 자료는 여성·가족·지역사회부가 제공하는 「일부 영역의 여성 역량 강화 통계」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였다. 국가 부처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몽골에서 혼외 출산은 출산 시 혼인 상태가 혼인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혼외 출산 비중은 성인들의 혼인 경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혼외 출산 비중 자료는 몽골 통계청의 인구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제공하였다.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혼외 출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태국의 경우 인구 동태 통계 시스템으로 부터 출생 등록 정보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태국 전 지역에 걸친 인구 동태 통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혼외 출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 SF2.4. Share of birhts outside of marriage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 Statistics Korea, Vital Statistics
말레이시아	• 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Statistics of women empowerment in selected domain
몽골	• National Statisitcs Office of Mongolia, Population Statistics
인도네시아	• 자료 없음
태국	• 자료 없음

## 6.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에서 중요한 개념은 조혼인율, 초혼연령, 조인혼율이다. OECD는 조혼인율을 해당 연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초혼 연령은 해당 연도에서 혼인 시 혼인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로 보고 있다.

한국은 통계청 인구 동향의 혼인·이혼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전체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합한 총 수로 제공하며,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무슬림 이혼 자료는 샤리아 법원이 제출한 이행 날짜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샤리아 사법부가 구축한 무슬림 이혼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비무슬림 이혼 자료는 민사 법원이 제출한 이행 날짜를 기반으로 국가 등록부가 구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초혼 평균 연령이 아닌 초혼 중위 연령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

아시아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몽골은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자료를 주민등록통계에 기반하여 통계청이 구축한 인구 동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평균 초혼 연령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반하여 산출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에 기반하여 조혼인율, 평균 초혼 연령, 조이혼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태국은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자료를 태국 내부무의 지방 행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기반하여 제공하였다. 평균 초혼 연령은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따라서 2010년 이후 평균 초혼 연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3-8>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istics Korea, Vital Statistics</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2021</li> <li>•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Vital Statistics, 2021</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Statisitcs Office of Mongolia, Vital Statistics</li> <li>• National Statisitcs Office of Mongoli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istics Indonesia</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istry of Interior,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li> <li>•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li> </ul>

## 7. 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SF3.2. 가족 해체와 아동”에서 중요한 개념은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분포,” “자녀 수별 이혼 분포,” “자녀 유무별 별거 혹은 이혼 비중”이다. 혼인 지속 기간을 1년 미만, 1~4년, 5~9년, 10~14년, 15~19년으로 구분하여 이혼 분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는 이혼 소송 시 부모 중 어느 일방이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한국은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기반으로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분포와 자녀 수별 이혼 분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자녀 유무별 별거 혹은 이혼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 수가 적어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는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분포” 자료를 몽골 통계청이 주민등록통계를 기반으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혼인 지속 기간은 “1년 미만,”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으로 OECD 지표의 기준과는 다소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인도네시아 가족생활 조사, 2014」, 「인도네시아 인구 및 보건 조사 2017」, 「전국 사회경제 조사, 2006, 2011」의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등 국가 공식 기관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는 아니다, 또한 조사 연도가 다소 오래되어서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사가 전국 대표성을 보장하는지, 최근 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차별로 지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조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태국은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lt;표 3-9&gt; 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istics Korea, Vital Statistics</li> <li>• World Value Survey (2017-2020)</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없음</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Population Statistics</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onesia Family Life Survey, 2014.</li> <li>• Indonesi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li> <li>•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06, 2011.</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없음</li> </ul>

## 8. 평가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가족 문화에 따라서 가족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인구센서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센서스의 가족 유형 코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경우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유형 자료 생산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혼인과 동거혼과 같은 구체적인 분류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OECD FD는 부양 자녀를 함께 거주하는 25세 미만 자녀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은 부양 자녀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보고 있다.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은 인구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의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센서스의 경우 가구 유형에 대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나, 센서스 자료가 아닌 조사 자료를 활용한 경우 가구 유형이 OECD 기준에 맞게 정의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청년 부양비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 기구의 인구 추계 자료와 함께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두 자료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국내 자료와 국제 기구 자료 간에 어떠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계 출산율 자료는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의 경우 통계청 혹은 보건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료가 아닌 World Bank의 추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완결 코호트 출산율 자료는 한국과 태국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하였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의 통계국은 완결 코호트 출산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혹은 가임기간 동안 평균 자녀 수를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완결 코호트 출산율 자료는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모의 출산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자료는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국내 자료와 UN 자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 혹은 UN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령별 출산율 자료가 출생 신고에 기반한 인구 동향 출생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구축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혼외 출산 자료의 경우, 한국과 몽골은 OECD 기준에 따라서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성부가 제공하고 있으나 혼외 출산율 15-19세 청소년 출산율로 간주하고 있어 OECD 기준과는 다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혼외 출산 자료를 생산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혼인율과 이혼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가 통계청 자료 혹은 행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상세한 이혼 관련 지표의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가 생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통계청이 이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녀 유무에 따른 이혼 비중과 같이 상세한 이혼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몽골은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분포 자료를 생산하는데 혼인 지속 기간에 대한 정의가 OECD FD와 다르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상세한 이혼 상태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통계청에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 제3절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1.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LMF1.4. 생애주기 고용”에서 중요한 개념은 고용과 고용률이다. “고용된 사람”은 ILO 정의에 따라서 특정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임금을 받는 고용 상태에 있거나 자영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률은 고용된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5세 간격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 기준에 따라 고용을 정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성별·연령별 고용률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통계청의 「일부 영역의 여성 역량 강화 통계 (2021)」와 「노동력 조사 보고서(2022)」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였다. 고용과 고용률에 대한 정의는 ILO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15-64세 근로 연령층의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5세 단위의 고용률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령 집단별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성별·교육 수준별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몽골은 통계청의 노동 통계를 활용하여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였다. 고용과 고용률에 대한 정의는 ILO 기준에 부합한다. 몽골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고용률 자료는 성별·연령별로 제공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ILOSTAT의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신력 있는 고용률 자료라고 볼 수 있다. ILOSTAT의 고용률 자료는 인도네시아 「전국 노동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연령별 고용률 자료는 ILOSTAT 상의 연령별 기준과 다소 달라서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전국 노동력 조사」를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하지만 「전국 노동력 조사」의 원자료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태국은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였다. 고용과 고용률에 대한 정의는 ILO의 기준과 동일하다. 동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고용률 자료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 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말레이시아	•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Statistic on Women Empowerment in selected Domain(2021), Labor Force Survey(2022)
몽골	• National Statistcs Office of Mongolia, Labor Statistics
인도네시아	• ILOSTAT Database
태국	• Labor Force Survey (2021)

## 2.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 time workers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에서 중요한 개념은 종일제 근로자의 중위 임금 성별 격차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중위 임금 차이가 남성의 중위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근로 시간과 시간제 근로에서 성별 격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종일제 근로자에 한정하여 성별 격차를 측정하였다.

한국 동 자료를 OECD Employment database에서 구하여 제공하였다. 한편, 한국은 정규직 종일제 근로자만 포함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종일제로 일하고 있어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계청의 「급여 및 임금 설문 조사 보고서」가 성별 중위 임금 및 평균 월 급여와 임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성별 격차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양성 격차 지표」는 경제적 기회 및 참여, 교육적 성취, 건강·생존·정치적 역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양성 평등도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지표에서 성별 임금 격차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자료를 산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몽골은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의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성별 임금 격차는 종일제와 시간제 노동자를 합한 모든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임금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몽골의 노동력 조사는 종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몽골의 노동력 조사는 평균 임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동력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면 중위 임금 자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ILO의 인도네시아 성별 임금 격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평균 임금 격차 자료를 제공하였다. 동 보고서를 활용해서는 중위 임금의 격차를 보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은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의 격차를 산출하여 제공하였다. 노동력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중위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1>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 time workers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 OECD Employment database
말레이시아	•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Salaries and Wages Survey Report
몽골	• National Statisitcs Office of Mongolia, Labor Force Survey
인도네시아	• ILO Document (Gender Pay Gaps in Indonesia)
태국	• Labor Force Survey

### 3.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LMF1.6. 고용 성과에서 양성 격차”에서 중요한 개념은 15-64세 고용률의 양성 격차, 교육 수준별 15-64세 고용률 양성 격차,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 여성의 관리직 비중, 0-14세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15-64세 여성의 막내 자녀 연령별 고용률이다. 15-64세 고용률의 양성 격차는 15-64세 인구에서 동 연령대의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남성과 여성으로 계산한 뒤 두 수치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교육 수준별 15-64세 고용률 양성 격차는 15-64세 고용률 양성 격차를 ISCED 2011년도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교육 수준을 세분화하여 산출한 자료이다. 시간제 고용은 주된

일자리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며 이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간제 고용률을 산출한다. 관리직은 국제표준직업분류의 08 분류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0-14세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15-64세 여성의 막내 자녀 연령별 고용률에서 0-14세 자녀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와 무관하게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막내 자녀 연령은 0-2세, 3-5세, 6-14세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한국은 OECD Employment database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였다. 따라서 OECD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통계청이 성별·연령별 고용자 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 전체 인구 수를 모수로 하여 고용률의 성별 격차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하지만 통계청이 제공하는 고용률 자료 제공 방식이 OECD와 달라서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간제 고용의 경우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성별 시간제 고용률을 산출하기 어렵다. 여성 근로자 비중은 말레이시아의 성별 직업별 고용자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동 자료에서 직업 분류는 말레이시아 표준 직업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 표준 직업 분류의 기준에 부합한다. 0-14세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15-64세 여성의 막내 자녀 연령별 고용률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15-64세 고용률의 성별 차이에 대한 정의는 ILO 기준에 부합하지만 연령 기준은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주된 직업에서 주당 40 이상 이하를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를 종일제 근로로 간주하고 있어 ILO 기준과 다르다.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2010년까지는 ISCO-88을 따랐고, 2011년 이후부터는 ISCO-08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ILOSTAT Database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은 해당되는 지표의 자료들을 「노동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표의 정의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lt;표 3-12&gt;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 OECD Employment database
말레이시아	•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Statistic on Women Empowerment in selected Domain(2021), Labor Force Survey(2022) • Ministry of Human Resource,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 (2021)
몽골	• National Statistcs Office of Mongolia, Labor Force Survey
인도네시아	• OECD Employment Database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 ILOSTAT Database
태국	• Labor Force Survey

#### 4. LMF2.1. Usual working hours per week by gender

“LMF2.1. 성별 근로 시간”에서 주요한 개념은 “성별 통상적인 근로 시간”과 “성별 평균 통근 시간”이다. OECD는 통상적인 근로 시간을 주된 일자리에서의 통상적인 주당 근로 시간으로서 전체 연령대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만, 불규칙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초과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 시간은 1-19시간, 20-29시간, 30-34시간, 35-39시간, 40시간 이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근 시간은 근로 장소 혹은 학업 장소에 통근 혹은 통학하는데 보내는 하루당 평균 시간이다. 통근 시간 자료는 전국적인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다. 통근 시간은 고용 상태 혹은 학업 참여 정도와 무관하게 주어진 연령대의 모든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다.

한국은 OECD Employment database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본다.

말레이시아는 성별 통상적인 근로 시간 자료를 말레이시아 통계청의 「일부 영역의 여성 역량 강화 통계 (2021)」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통근 시간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성별 통상적인 근로 시간 자료를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였으

며, 통근 시간 자료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였다. 근로 시간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몽골은 과도한 근로 시간을 주당 48 이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통근 시간은 근로 장소로의 통근 시간만 포함되며 학업 장소로의 통학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근로 시간 자료를 ILOSTAT Data Explorer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였다. ILOSTAT Data Explorer는 인도네시아의 근로 시간을 「전국 노동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통근 시간 자료는 「2014년도 자카르타 광역 지역 통근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 하였다. OECD는 통근 시간 자료를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국 자료가 아닌 자카르타 광역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은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 시간 자료와 통근 시간 자료를 산출하였다. 근로 시간 자료는 OECD의 기준과 정의에 부합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근 시간 자료에 대해서 OECD는 시간 일지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 조사인 「노동력 조사」를 통해서 산출한 통근 시간 자료의 내용은 시간 일지를 기반으로 한 자료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13> LMF2.1. Usual working hours per week by gender의 활용 자료

국가	활용한 자료원
한국	• OECD Employment database
말레이시아	• Department of Statics Malaysia, Statistic on Women Empowerment in selected Domain(2021)
몽골	• Labor Force Survey, Time Use Survey
인도네시아	• ILOSTAT Data Explorer • Greater Jakarta Area Commuter Survey 2014
태국	• Labor Force Survey 2021

## 5. 평가

고용률 자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거나 ILO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각 국가의 통계청은 OECD 지표와 같은 세부적인 집단별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연령 기준 등 세부 집단을 구분할 때 OECD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세부집단별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일제 고용자의 성별 임금 격차 자료는 OECD Employment 자료를 활용한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자국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은 중위 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 자료를 제공하였다.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위 임금 자료에 기반한 성별 임금 격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고용 성과에서 양성 격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가 통계청 자료, 국제 기구 자료, 전국적인 노동력 조사에 기반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다만, 연령 기준, 시간제 근로에 대한 정의가 OECD의 정의와 다른 것이 발견되고 있다. 통계청 등 각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때 OECD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성별 근로 시간 자료에 대해 OECD는 시간 일지를 기반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생활 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 일지가 아닌 설문 문항으로 근로 시간을 파악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 정의한 근로 시간에 대한 정의가 OECD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제4절 가족과 아동 정책

### 1. PF1.3. Family cash benefits

“PF1.3.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에서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는 자녀와 관련하여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다. 여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가족 수당, 아동 수당, 아동 급여 등이 포함된다. 자녀와 관련하여 지원받는 세액 공제가 가족 수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에 포함된다. 매우 특정한 집단 혹은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가족 혹은 아동 관련 현금 급여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교육 급여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부성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가정 양육 수당, 출산 장려금, 장애 아동 급여,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2019년 9월 1일부터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0,000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수당만을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에 포함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수당, 교육 급여, 장애 아동 수당, 양육 수당, 육아 휴직 급여는 포함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부처가 가족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부가 빈곤한 가정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과 식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무부가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OECD가 정의하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몽골의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아동현금프로그램이다. 2019년 6월부터 아동현금프로그램은 0-18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아동현금프로그램의 액수는 다섯 차례 인상된 바 있다. 자녀 혹은 영구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봄 수당이 있다. 몽골은 이러한 아동현금 프로그램과 돌봄 수당을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포함시켰다. 사회복지급여, 다자녀 한부모 가족 수당,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 빈곤자를 위한 식품 바우처 사업 등은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동 현금 프로그램은 OECD의 가

족에 대한 현금 지원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돌봄 수당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는 특정한 직업 또는 일부 지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 월 \$7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한다. Papua 지역에서 2018년 12월부터 월 \$14를 0-6세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 Aceh 지역은 2019년 10월부터 월 \$10를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 빈곤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지원, 빈곤 아동 대상 교육 급여, 빈곤 가정 대상 조건부 현금 지원, 빈곤자 혹은 위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건강 보험 지원은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OECD 정의에 따르면 가족 대상 현금 급여는 특정한 직업 혹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은 OECD 정의에 따른 가족 대상 현금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 급여로 보았다. ① 사회 보장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아동당 600 Baht (최대 3명까지 지원)를 지급받는다. ② 출산 전후 휴가 급여로 자녀 출산 후 90일 동안 13,000 Baht가 지원된다. ③ 저소득 가족은 자녀가 3세 될 때까지 자녀 당 월 600 Baht를 지급 받는다. ④ 부모들은 자녀당 연간 30,000 Baht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간 최대 3명을 자녀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5세 미만이어야 한다. OECD 정의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저소득층 가족 지원은 가족 대상 현금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당 600 Baht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는 가족 대상 현금 급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회보장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OECD 정의에 부합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 감면 혜택은 세액 공제 형식으로 받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대상 현금 급여로 정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3-14&gt; PF1.3. Family cash benefits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

국가	정책의 종류	부합 여부
한국	아동 수당	○
말레이시아	빈곤 가정 대상 재정적 지원 (사회복지부)	×
	식품 지원 (사회복지부)	×
	소득 지원 (재무부)	×
몽골	아동현금프로그램	○
	돌봄수당	×
인도네시아	공무원 자녀 대상 현금 지원	×
	Papua 지역의 아동 현금 지원	×
	Aceh 지역의 아동 현금 지원	×
태국	사회보장체계의 아동 현금 지원	△
	출산전후 휴가	×
	저소득 가정 대상 현금 지원	×
	조세 감면	×

## 2. PF2.1.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systems

“PF2.1. 육아휴직 체계의 주요 특징”의 주요한 개념은 출산전후휴가, 부성 휴가, 육아 휴직, 가정양육휴가, 모가 사용 가능한 육아 휴직 및 가정 양육 휴가, 부에게 특정된 육아 휴직 및 가정 양육 휴가, 육아 휴직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이다. 출산전후 휴가는 여성의 출산 전후에 고용이 보장되는 휴가로서 ILO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14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들은 휴직 급여를 지원받는다. 부성 휴가는 자녀 출산 시점 혹은 1개월 이내에 아버지들에게 고용이 보장되는 휴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 휴직은 산전후 휴가 혹은 부성 휴가에 추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휴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휴가는 개인 단위로 부여 하지만 휴직 급여는 가족 단위로 지원된다. 가정 양육 휴가는 육아 휴직 이후에 자녀가 2~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가정에 남아서 자녀를 양



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이 보장되는 휴가를 말한다. 모가 사용 가능한 육아 휴직과 가정 양육 휴가는 모에게 특정하게 할당된 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부에게 특정된 육아 휴직 및 가정 양육 휴가는 부 혹은 다른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없는 휴가 기간이다.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보너스 휴가로 주어지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에게 “일임된” 휴가라고 볼 수 있다. 육아 휴직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입된 개념이다. 육아 휴직 급여가 소득의 100%로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육아 휴직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육아휴직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표의 자료를 산출하여 제공하였다.

말레이시아는 60일(12주) 산전후 휴가를 제공하였으나, 2017년도에 90일(12주)로 확대되었으며, 말레이시아 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98일(14주)로 확대되어 ILO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 여성 휴가는 2017년부터 공공 부문에 한해서만 3일의 휴가를 부여하였으나 말레이시아 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7일간의 유급 휴가로 확대되었다. 산전후 휴가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에 최소 12개월 이상을 근로하여야 한다. 여성 휴가는 결혼한 남성만이 사용가능하며 부인의 수와 상관없이 다섯 명의 자녀까지만 사용가능하다. 202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휴가에 대한 법령 조항이 없었으며, 여성 휴가 급여는 근로 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되었다. 말레이시아에 육아 휴직과 가정 양육 휴가는 없다. 모에게 할당된 육아 휴직 및 가정 양육 휴가, 그리고 부에게 할당된 육아 휴직 및 가정 양육 휴가는 없다. 육아 휴직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의 육아 휴직 기간은 말레이시아에 육아 휴직과 가정 양육 휴가가 없기 때문에 출산전후 휴가를 대상으로만 산출이 가능하다.

몽골은 산전후 휴가로 4개월(16주)의 휴가를 제공한다. 여성 휴가로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육아 휴직으로 3세 미만의 부모가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육아 휴직을 허락해야 한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휴직 급여는 노동법, 단체협약,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모 혹은 부에게 할당된 육아 휴직과 가정 양육 휴가 기간은 없다. 육아 휴직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4개월 간

의 출산전후 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가 임금의 100%로서 12개월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출산 전후 휴가로서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공무원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 3개월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자녀부터는 특정 조건하에서 일반적인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성 휴가는 2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휴가는 연가로서 사용해야 하며 무급 휴가이다. 공무원의 경우 2일간의 부성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급자가 허용하는 경우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수당만이 지급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10일까지 부성 휴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육아 휴직 제도는 없으며 본인, 가족을 대상으로 위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의 허가 하에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정 양육 휴가는 없다. 모 혹은 부에게 할당된 휴가 기간은 없다. 육아 휴직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출산전후 휴가를 대상으로만 산출이 가능하다.

태국은 산전후 휴가로 90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최초 45일 동안은 고용주가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나머지 45일 동안은 사회보장기금에서 임금의 50% (상한액 15,000 Baht)를 지원한다. 부성 휴가는 공무원에 한해서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육아 휴직 제도와 가정 양육 휴가 제도는 없다. 모 혹은 부에게 할당된 휴가 기간은 없다. 육아 휴직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출산전후 휴가를 대상으로만 산출이 가능하다.

&lt;표 3-15&gt; PF2.1.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systems 현황

국가	정책 유형	현황
한국	산전후 휴가	90일
	부성 휴가	10일 유급
	육아 휴직	1년
	가정 양육 휴가	없음
	모 할당된 휴가	64.9주
	부 할당된 휴가	53.4주
	급여 100% 가정 시 휴가 기간	25.1주(여성), 16.2주(남성)
말레이시아	산전후 휴가	98일 (14주)
	부성 휴가	7일 유급
	육아 휴직	없음
	가정 양육 휴가	없음
	모 할당된 휴가	없음
	부 할당된 휴가	없음
	급여 100% 가정 시 휴가 기간	산전후 휴직 급여를 대상으로 산출 가능
몽골	산전후 휴가	4개월 (16주)
	부성 휴가	10일 유급
	육아 휴직	3세 미만
	가정 양육 휴가	없음
	모 할당된 휴가	없음
	부 할당된 휴가	없음
	급여 100% 가정 시 휴가 기간	산전후 휴직 급여를 대상으로 산출 가능
인도네시아	산전후 휴가	3개월
	부성 휴가	2일 (유급)
	육아 휴직	없음
	가정 양육 휴가	없음
	모 할당된 휴가	없음
	부 할당된 휴가	없음
	급여 100% 가정 시 휴가 기간	산전후 휴직 급여를 대상으로 산출 가능
태국	산전후 휴가	90일
	부성 휴가	15일 (공무원)
	육아 휴직	없음
	가정 양육 휴가	없음
	모 할당된 휴가	없음
	부 할당된 휴가	없음
	급여 100% 가정 시 휴가 기간	산전후 휴직 급여를 대상으로 산출 가능

### 3. PF1.4.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education services

“PF1.4. 보육 및 유아 교육 서비스 체계”에서 중요한 개념은 시설 보육, 가정 보육, 취학전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설 보육 서비스는 유아 교육이 시작되기 전 3-4세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가정 밖의 등록된 시설에서 종일제 혹은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정 보육은 보육사가 가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로서 아동은 아동의 집 혹은 보육사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취학전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시설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의무적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입학 전에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취학 전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종일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시간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의 보육 및 유아 교육 체계는 크게 보육 서비스와 유아 교육으로 구분된다. 보육 서비스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시설에서 제공한다. 조기 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의무 교육은 6세부터 시작된다. 시설 보육 서비스는 공공 어린이집, 사회복지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서 제공된다. 가정 보육은 가정 어린이집에서 제공된다. 취학전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보육 서비스는 시설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와 보육사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로 크게 구분된다. 시설 보육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직장 보육시설이 있다. 시설 보육 서비스는 4세미만 아동 4명 이상을 돌보는 기관(1984년 제정 아동 보육시설법 제308조)이 제공한다. 보육사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는 지역 사회 혹은 보육사의 거주지에서 제공한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 입학하기 1년 전 학습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 제공한다.

몽골에서 시설 보육 서비스는 공공 보육 시설, 민간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로 구분된다. 사회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을 운영한다. 공식적인 가정 보육 시설은 없으나 가정적인 환경에서 보육사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세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종일제 혹은 시간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 제공받는다. 공공과 민간 모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에 의해서 운영된다.

인도네시아는 등록된 보육 시설로 공공 보육 시설, 영리 민간 보육 시설, 지역 사회/NGO 보육 시설, 협동 보육 시설, 고용주 지원 보육 시설, 비등록된 보육 시설로 영리 민간 보육 시설과 지역 사회/NGO 보육 시설이 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종교 단체와 같이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현금 혹은 현물로 비용을 지불하는 미등록 보육 서비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록된 보육 서비스, 베이비 시터 등이 있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4-6세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제공하며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슬람 유치원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치원이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놀이 집단 등이 있다.

태국에서 영유아 보육 서비스는 크게 0-3세와 3-5세로 구분된다. 0-3세 아동은 대부분 가족이 직접 양육하며, 3-5세 아동은 아동발달센터에 등록하여 양육된다. 1999 년도에 마련된 국가교육법에 따르면 유아 교육은 유치원에서 3년 동안 제공되며 공식 적, 비공식적 유아 교육 서비스가 있다. 보육 시설은 0-3세의 6명 혹은 그 이상의 아동 들을 돌보며 1년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4시 30분 혹은 5시까지이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6시까지 운영 하는 유연성을 갖기도 한다.

<표 3-16> PF1.4.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education services 체계

국가	보육 서비스	유아 교육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어린이집, 사회복지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민간)</li> <li>• 가정 보육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보육 시설, 민간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li> <li>• 가정 보육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보육 시설, 영리 민간 보육 시설, 지역 사회/NGO 보육 시설, 협동 보육 시설, 고용주 지원 보육 시설</li> <li>• 가정 보육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세 보육 시설 (아동발달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li> </ul>

#### 4. 평가

대부분의 국가가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 이외 저소득층 가족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돌봄 수당을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에 포함하고 있다. 분석 대상 국가에서 아직 보편적인 아동 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아동과 가족 대상 현금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에 사회 복지 차원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현금성 지원까지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가 정의하는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에는 아동 혹은 가족 수당과 수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세액 공제만이 포함된다는 것을 아태지역 연구자들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육아 휴직 체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출산 전후 휴가와 부성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몽골을 제외하고 육아 휴직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ILO 기준에 따라 최소 14주 이상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 휴가 기간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 혹은 부에게 할당된 휴가 기간은 없다. 이는 부부가 육아 휴직을 분담할 때 추가적으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아태지역에서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보육 및 유아 교육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0-2세 대상 보육 서비스와 취학전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는 시설 보육 서비스와 보육사에 의한 가정 보육 서비스 모두 제공하고 있다. 취학전 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제공한다. 보육 시설과 유치원은 공공,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절 소결

본 절에서는 각 지표에 대한 국가별 정의와 이용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표에 대한 국제적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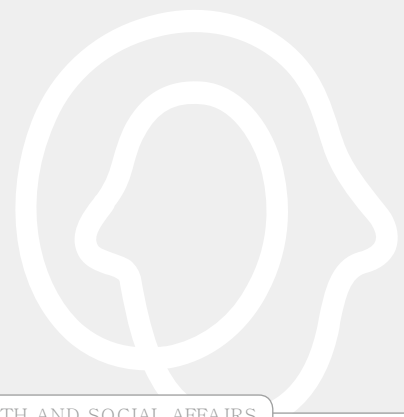
가족의 구조와 관련된 7개의 지표에 대한 정의와 이용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과 관련된 자료는 각 국가의 통계청 혹은 UN 등 국제 기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혼외 출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혼외 출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 인구 자료는 UN 자료 혹은 국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가족의 규모와 구성은 각 국가의 인구센서스 자료 혹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각 국가의 가족 유형 코드를 활용하여 OECD 기준에 맞게 가족 유형을 재분석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재분류 과정에서 OECD의 가족 유형의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혼인과 이혼과 관련하여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에 대한 자료는 행정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혼한 가정에 대한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들은 아직도 아태지역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율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고용율 자료를 생산하는데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보고 체계가 OECD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과 돌봄 시간에 대한 자료는 생활시간조사가 아닌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까지 아동 수당 혹은 가족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가진 가족 대상 현금 지원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에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국가가 ILO 기준에 부합하는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성 휴가 제도는 국가마다 대상자와 휴가 기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았다. 아태지

역 국가들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체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육 시설과 유치원은 공공,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제 4 장

### 아태지역 가족 정책의 최근 현황

- 제1절 중국
- 제2절 일본
- 제3절 몽골
- 제4절 싱가포르
- 제5절 태국
- 제6절 베트남
- 제7절 말레이시아
- 제8절 인도네시아



## 제 4 장      아태지역 가족 정책의 최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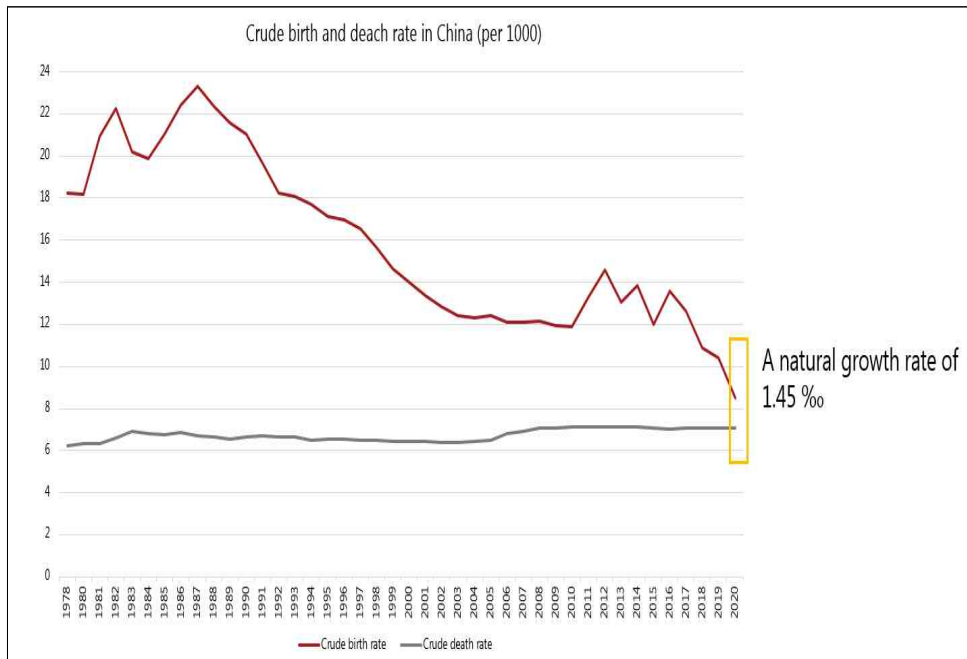
아태지역 국가들은 출산율과 가족 구조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 정책의 발달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출산율 하락과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2000년대부터 가족 정책을 확대하였다. 최근에 심화된 저출산 및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가족 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어 OECD 주요 회원국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아동 수당, 육아 휴직,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들의 가족 정책은 아직도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편적인 가족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도 출산 및 가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난 2022년 11월 29일 「제6차 아태지역 가족 정책 전문가 회의」에서는 각 국가의 출산 및 가족 변화의 현황과 최근 가족 정책의 이슈에 대해 각 국가가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본 장에서는 동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내용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가족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 제1절 중국

과거 오랜 기간동안 한자녀 출산 정책을 추진하였던 중국은 최근 들어 세 자녀 출산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정책 방향이 전환된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출산아 수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조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은 1978년 이후 2020년까지 약 6~7명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은 1987년에 23.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급속하게 하락하여 2010년에 11.9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여 2020년 현재 8.52명을 보이고 있다. 조출생률 감소로 인해 중국의 자연 인구 증가율은 2020년 현재 1.45%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4-1]).

[그림 4-1] 중국의 조사망율과 조출생율 추이 (197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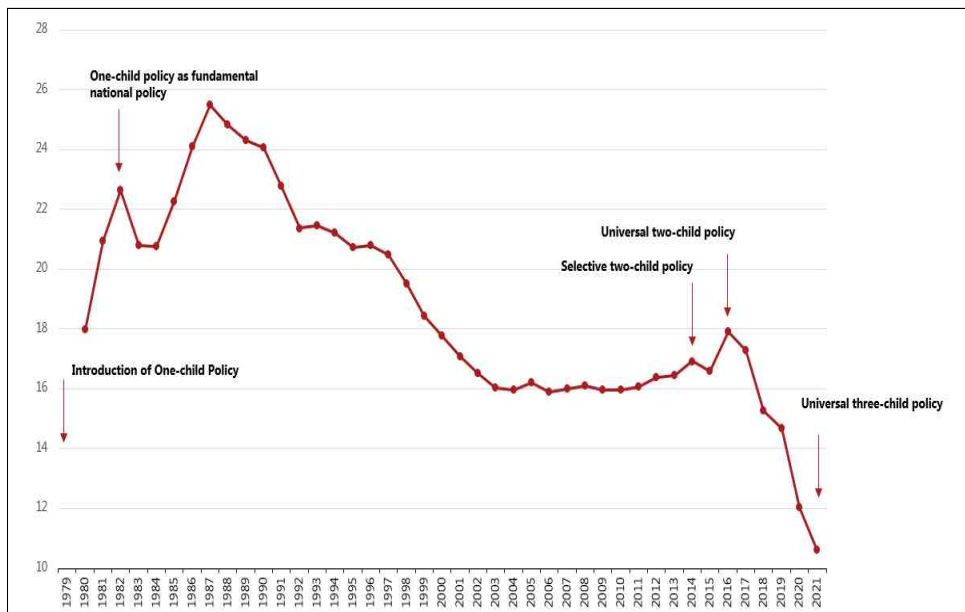


자료: China Yearbook of Statistics (2021), Mengni Chen (2022) Family Policy data in China,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중국은 1980년에 증가하는 인구 감소를 목적으로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1982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국가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출생아 수는 1987년 25.5백만명까지 상승하는 최고 수준을 보인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초반에 약 16백만명까지 하락했고 이후부터 이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에 선택적인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 보편적인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이후 더욱 급속하게 하락하여 2021년 10.6백만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중국은 2021년부터 보편적인 세 자녀 정책으로 다시 확대하였다.

[그림 4-2] 중국의 출생아 수와 주요 출산 정책 (1980-2021)

(단위: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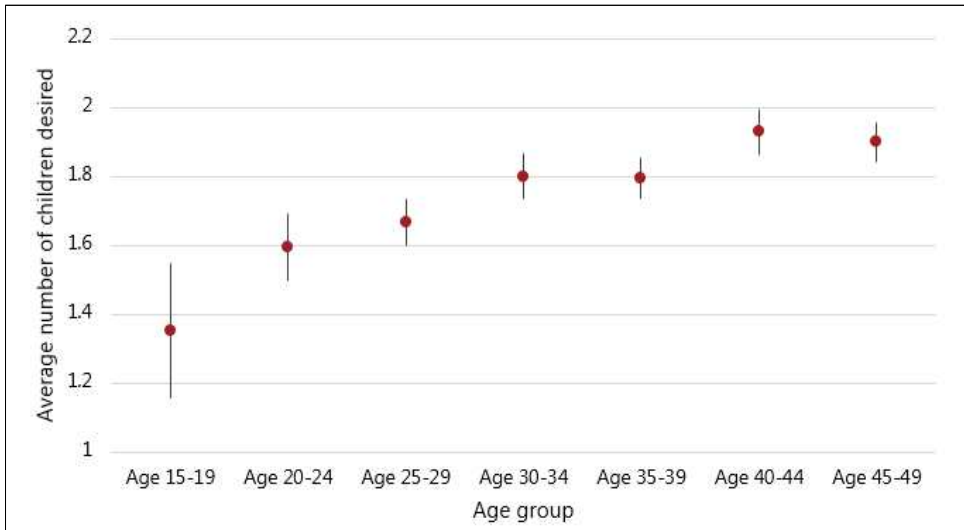
자료: China Yearbook of Statistics (2021), Mengni Chen (2022) Family Policy data in China,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중국의 보편적인 세 자녀 출산의 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출산 정책으로 양질의 출산 전 및 출산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적인 인공 수정 기술을 향상시킨다. 둘째,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2-3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보육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모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도모하고,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을 강조하면서 모의 근로 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주거 지원 정책으로 공공 주거 체계를 향상시키고 주거 구입을 위한 더 많은 용자를 제공한다. 다섯째, 교육 정책으로 수준 높은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감소한다. 여섯째, 근로 환경 정책으로 가정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한 근로와 원격 근무를 확산한다. 여섯째, 사회적 가치 정책을 통해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분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연령별·세대별·지역별로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층 혹은 도시 거주자가 중장년 혹은 농촌 거주자보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자녀 수는 전체 연령 집단에서 이미 2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9세 1.4명, 20-24세 1.6명, 25-29세 1.7명, 30-34세와 35-39세 1.8명, 40-44세와 45-49세 1.9명으로 40세 이후부터는 약 2명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지만 미래 가임기 세대인 15-19세와 20-24세는 1.5명 수준으로 낮다.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 즉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 연령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세 이상에서는 약 2% 미만으로 적다. 하지만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9세가 약 20%, 20-24세가 약 13%로 높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젊은 세대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 4-3] 중국의 연령 집단별 평균 이상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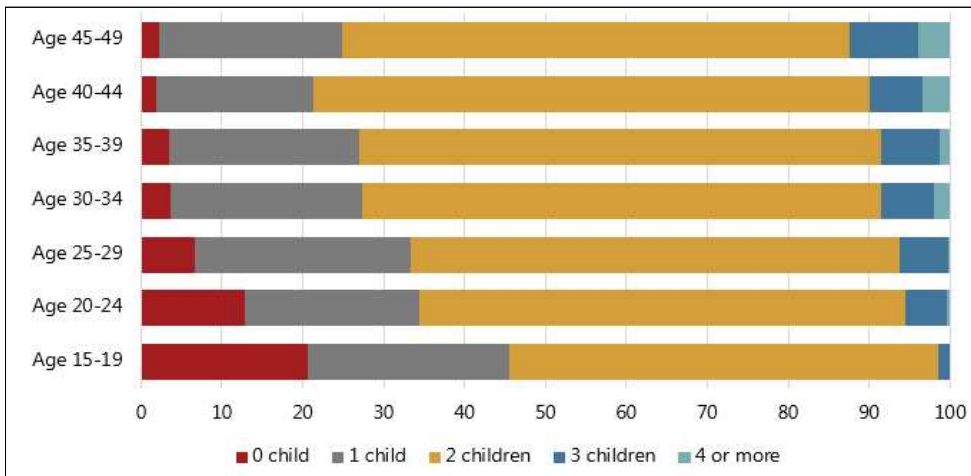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Mengni Chen이 분석한 결과, Mengni Chen (2022) Family Policy data in China,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그림 4-4] 중국의 연령 집단별 이상 자녀 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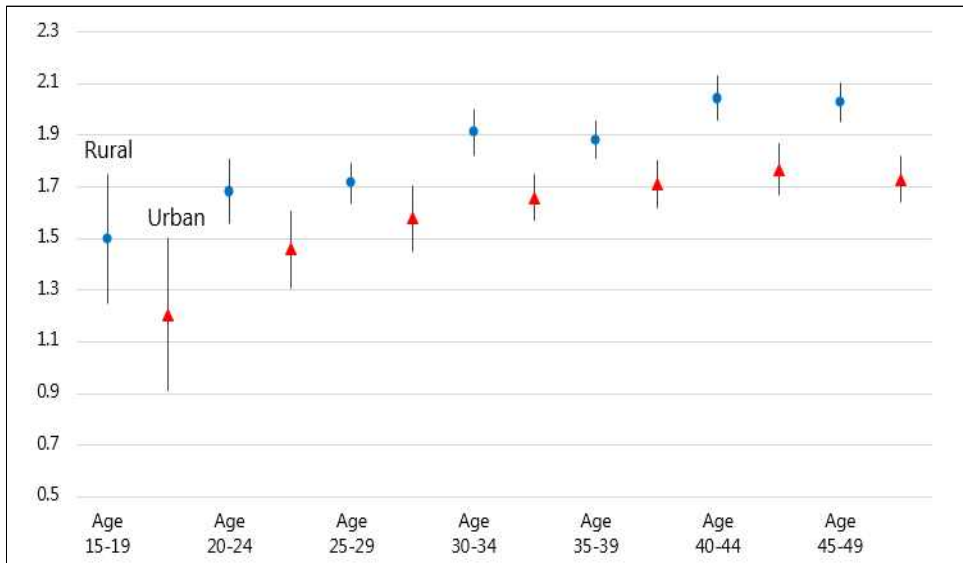


자료: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Mengni Chen이 분석한 결과, Mengni Chen (2022) Family Policy data in China,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이상 자녀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든 연령대에서 이상 자녀 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0-44세 연령층에서 이상 자녀 수는 농촌 지역이 약 2명 수준에 가까운 반면에, 농촌 지역은 1.7명 수준으로 낮다. 농촌 거주 15-19세의 이상 자녀 수는 약 1.5명인데 반해 도시 거주 15-19세의 이상 자녀 수는 1.2명으로 낮다. 또한 농촌 거주 20-24세의 이상 자녀 수는 1.7명 수준인데 반해 도시 거주 20-24세의 이상 자녀 수는 1.5명으로 낮다. 15-19세 중에서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 즉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촌이 14.7%인데 반해 도시는 26.5%로 약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20-24세 중에서 농촌의 경우 9.2%인데 반해 도시는 18.4%로 나타났다.

[그림 4-5] 중국의 연령 집단별·지역별 평균 이상 자녀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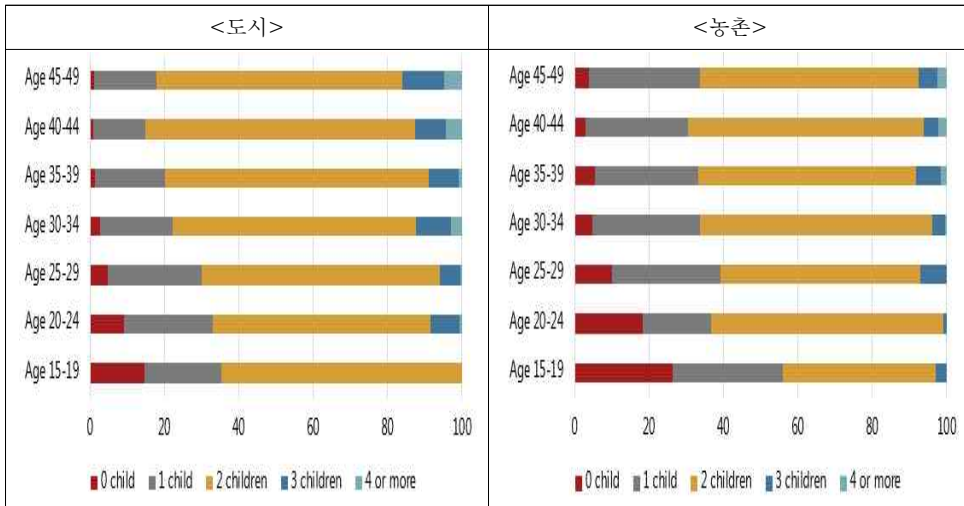


자료: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Mengni Chen이 분석한 결과, Mengni Chen (2022) Family Policy data in China,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그림 4-6] 중국의 연령 집단별·지역별 이상 자녀 수 분포

(단위: %)



자료: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Mengni Chen이 분석한 결과, Mengni Chen (2022) Family Policy data in China,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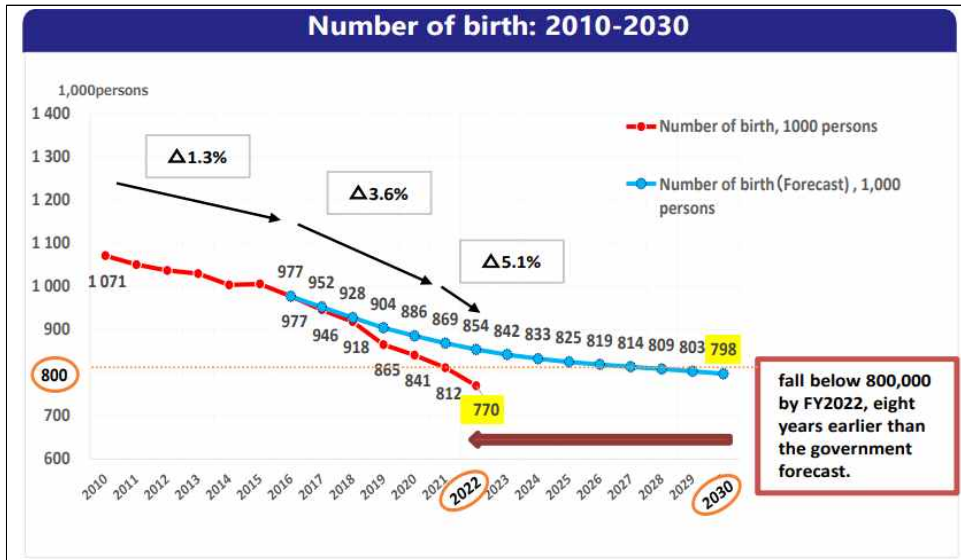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2명 이하로 하락하여 보편적인 세 자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향상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특히 농촌 지역과 비교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중국의 미래 인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이러한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축소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일본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10년 1,071천명에서 2022년 770 천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출산아 수 감소율은 2010-2015년 1.3%, 2015-2020년 3.6%, 2020-2022년 5.1%로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실제 출생아 수는 추계치보다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30년에 798 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2022년 현재 이미 이러한 추계치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림 4-7] 일본의 출생아 수 추이 (201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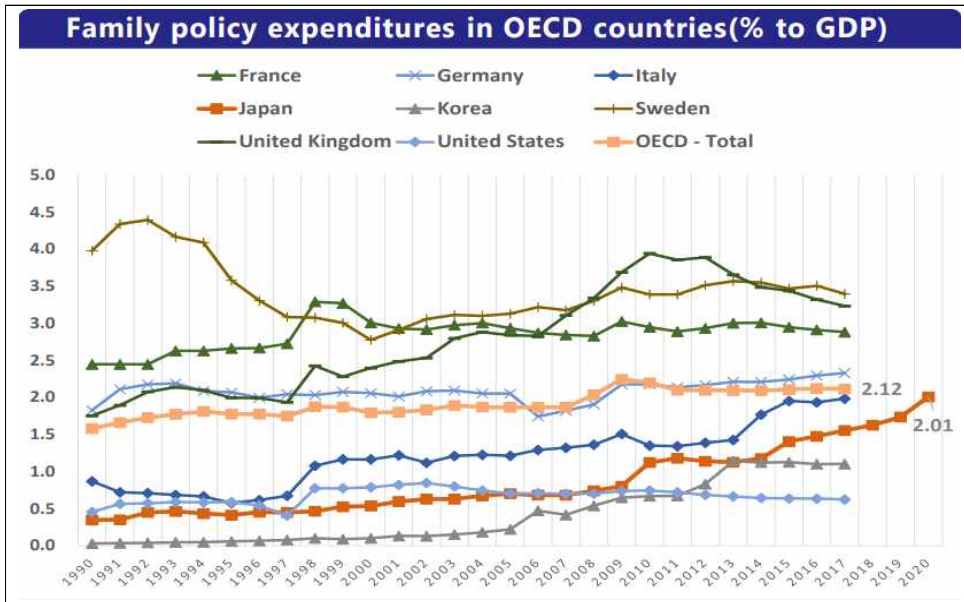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NIPSSR Population Statistics Database, Junko Takezawa (2022) Japan Report in Asia-Pacific Region: Recent family policy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Family Data 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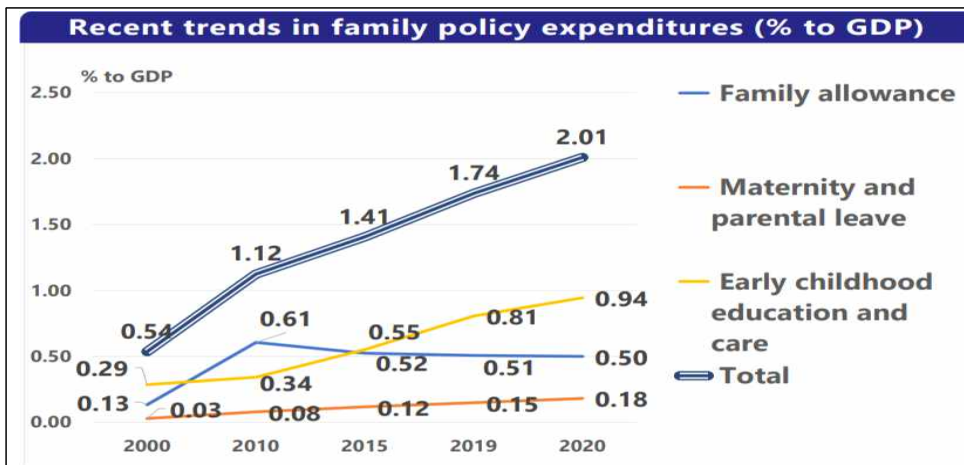
일본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2.1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2.01%이다. 일본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일본이 영유아 보육에 대해 공공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만 하더라도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9%이었으나 2015년 0.55%, 2020년 0.94%로 증가하였다. 2020년 현재 일본의 0-2세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은 52.1%, 3-5세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은 95.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지만 2000년 0.03%에서 2020년 0.1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4-8]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0-2020)



자료: OECD SOCX, NIPSSR Financial Statistics of Social Security, Junko Takezawa (2022) Japan Report in Asia-Pacific Region: Recent family policy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Family Data 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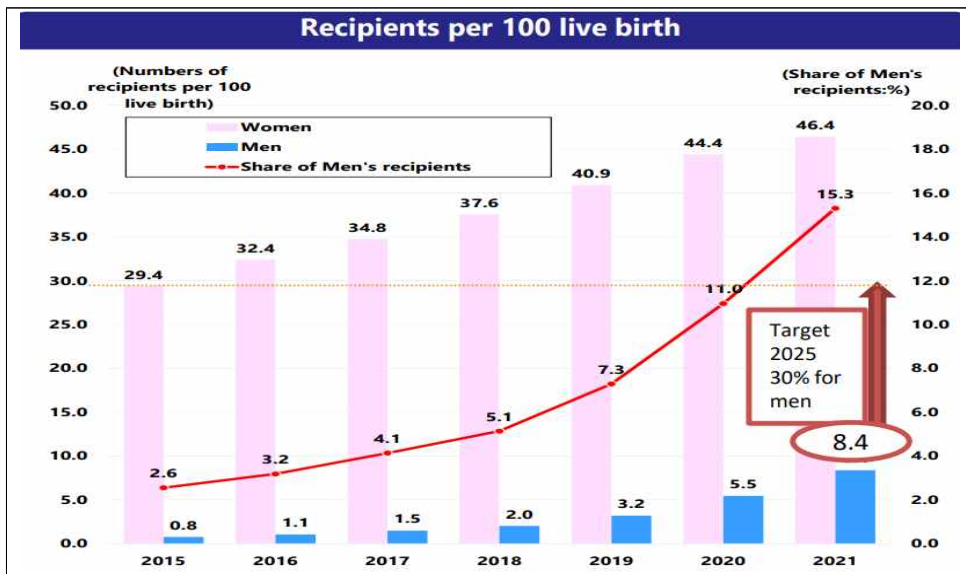
[그림 4-9] 일본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0-2020)



자료: NIPSSR Financial Statistics of Social Security, Junko Takezawa (2022) Japan Report in Asia-Pacific Region: Recent family policy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Family Data 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최근 들어 일본에서 육아 휴직 정책에 많은 개혁이 일어났으며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여성의 수는 2015년 29.4명에서 2021년 46.4명으로 증가하였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남성의 수는 2015년 0.8명에서 2021년 8.4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육아 휴직 지급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1년 15.3%로 증가하였다.

[그림 4-10] 일본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지급자 수 및 전체 지급자 중 남성 비중 (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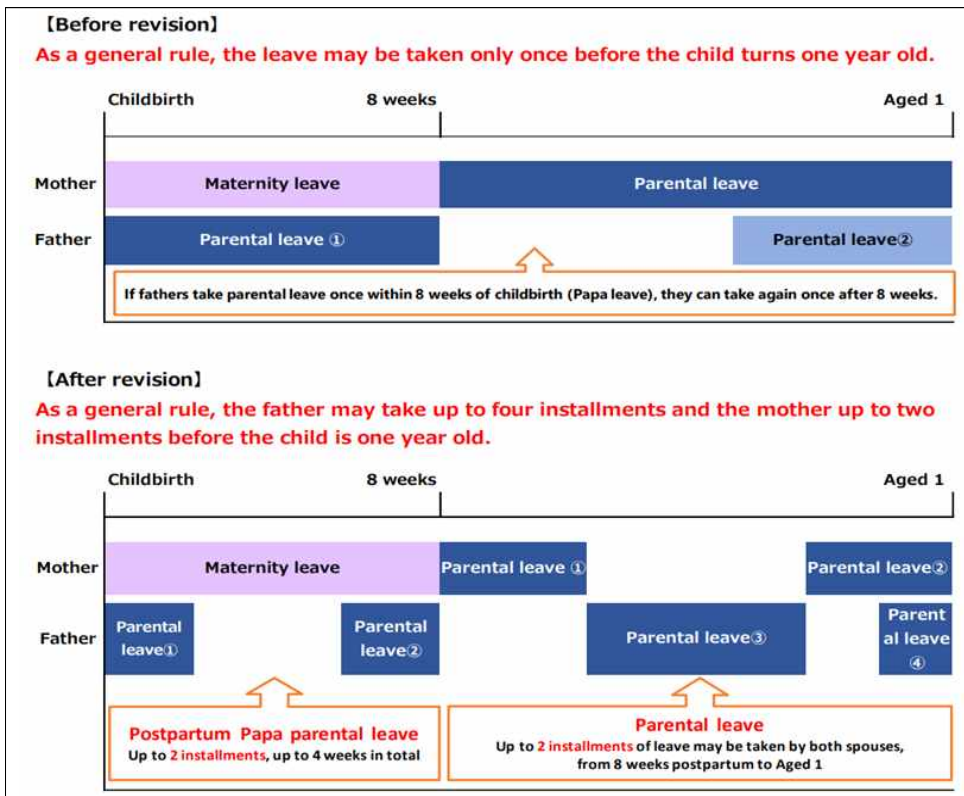
자료: NIPSSR이 일본후생노동성 고용보험 연간보고서 및 출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Junko Takezawa (2022) Japan Report in Asia-Pacific Region: Recent family policy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Family Data 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2022년부터 일본의 육아휴직제도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사업체의 고용주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임신 혹은 출산을 알리는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2022년 10월부터 아버지로 하여금 배우자 출산 후 8주 이내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8주 이후 육아 휴직을 부모 모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4월부터 의무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남성 노동자가 육아 휴직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1,00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혁 전에 일본의 육아 휴직 제도는 모성 휴가 기간인 출산 후 8주 이후부터 1세 전까지 1회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혁 후에 여성은 모성 휴가 후부터 자녀 연령 1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 휴직을 분할하여 2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남성의 경우 모성 휴가 기간인 출산 후 8주 이내에 육아 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8주가 지난 후에도 육아 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남성은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 휴직을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 4-11] 일본의 육아 휴직 제도의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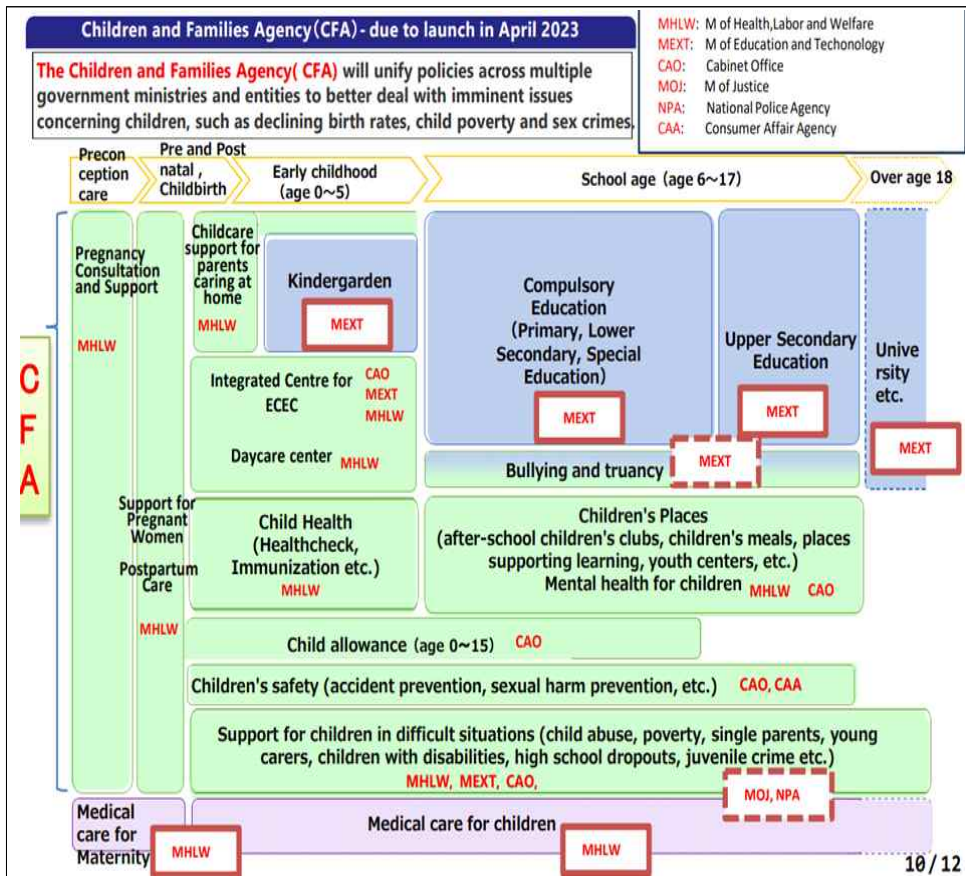


자료: Junko Takezawa (2022) Japan Report in Asia-Pacific Region: Recent family policy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Family Data 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2023년 4월부터 「아동 및 가족 위원회」를 창설하여 다양한 부처로 혼재되어 있었던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다루게 되었다. 동 위원회가 마련됨으로써 유아 교육과 모성 보건 분야만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 남겨두고, 출산전 상담과 지원, 임신 여성 지원, 출산 후 지원, 가정 양육, 보육, 아동 보건, 아동 지원 (방과후 시설, 급식, 학습 지원, 청소년 센터 등), 아동 정신 보건, 아동 수당, 아동 안전, 취약 아동 지원 (아동 학대, 빈곤 아동, 한부모, 청소년 근로, 장애 아동, 학교 중퇴, 청소년 범죄) 등 아동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아동 관련 이슈와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림 4-12] 일본의 아동 및 가족 위원회의 업무 영역



자료: Junko Takezawa (2022) Japan Report in Asia-Pacific Region: Recent family policy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Family Data 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 제3절 몽골

몽골의 인구는 2000년에 2,403,105명에서 2021년 3,409,39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몽골의 합계 출산율은 2000년에 2.2명에서 2021년 2.9명으로 2명을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몽골의 가족 형태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 4.6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조혼인율은 9.2명에서 7.7명으로 하락하고, 조이혼율은 0.6명에서 1.6명으로 상승하였다. 혼외 출산 비중은 10.4%로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몽골의 노동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률은 2000년 60%에서 2021년 52.3%로 하락하였으며 근로자 중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2.1%와 58.0%, 2021년 59.6%와 40.4%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8.1%로 증가하였다. 고용률에서 양성 격차는 2000년 4.1%에서 2021년 12.1%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몽골의 노동 시장 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고용에서의 성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말해 준다. 앞서 언급한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몽골의 노동 시장 환경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몽골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이다. 이는 OECD SOCX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몽골 연구자의 자체 계산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의 자료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GDP에서 1%가 넘는 지출을 가족과 교육에 할당하고 있다는 것은 몽골에서 가족과 교육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에는 한부모 수당, 다자녀 가족 수당, 자녀 양육 수당,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수당 등이 있다. 출산 전후 휴가로 16주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성 휴가로 10일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교육 체계와 관련하여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로 공공 부문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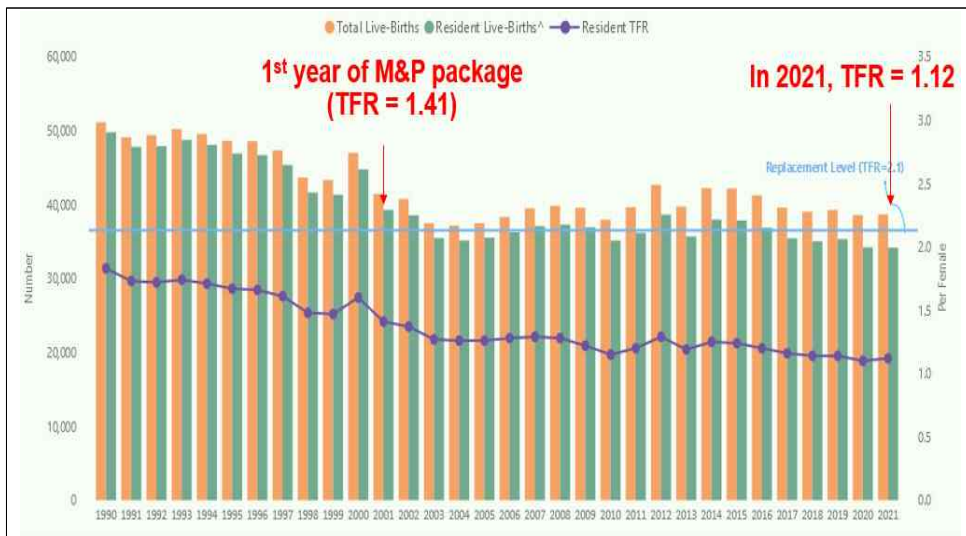
아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은 2000년 32.8명에서 2021년

12.0명으로 하락하였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0년 63세 (남성 60세, 여성 66세)에서 2021년 71세(남성 67세, 여성 77세)로 증가하였다. 전체 빈곤율은 2003년 36.1%에서 2021년 27.8%로 하락하였고 2021년 현재 아동 빈곤율은 36.8%이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에서 영아 보건 상태가 향상하고 있으며 빈곤 상태도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제4절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속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여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M&P)” 정책을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M&P 정책을 시작할 당시인 2001년에 합계 출산율은 1.41명이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한지 2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12명으로 출산율은 상승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4-13]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과 총출생아 수 추이 (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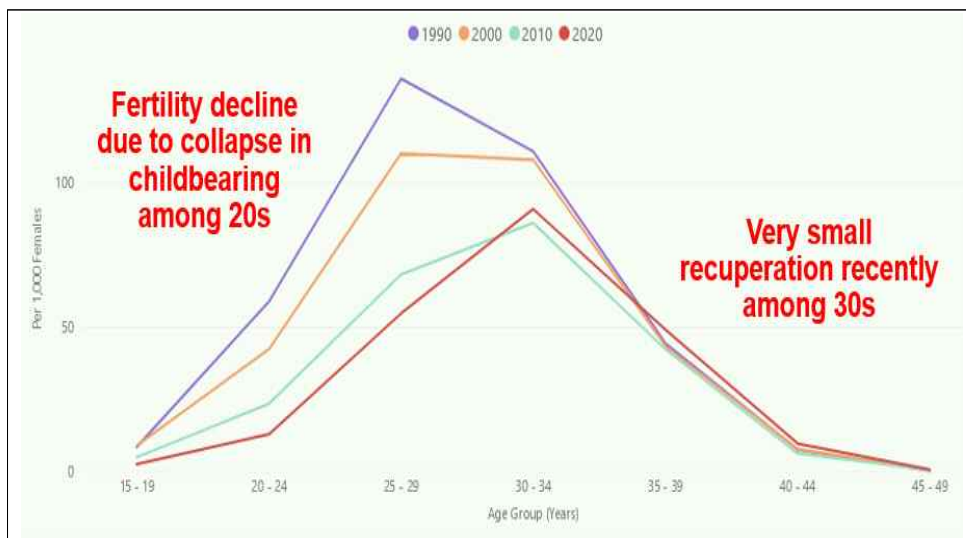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22), TAN Poh Lin (2022) OECD Family Data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싱가포르에서 합계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는 인구학적 요인은 20대 젊은 층에서 출산이 하락하고 20대에서 미루어진 출산이 30대에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4]의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높이도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 출산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변화하고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도 하락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출산아 수 하락은 특히 20대에서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싱가포르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1990, 2000, 2010, 2020)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22), TAN Poh Lin (2022) OECD Family Data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에서 재구성

싱가포르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인 M&P 정책의 최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인 급여로서 혼인하는 사람에게 주거 지원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재정적인 지원으로 11,000-16,000 싱가포르달러에 해당하는 출산 지원금을 제공한다. 2주간의 부성 휴가 기간을 부여한다. 아버지들을 위한 유급 양육 휴가를 6일 제공한다. 보육비 지원으로 월 150 싱가포르달러를 제공한다. 조세 지원으로 5,000-20,000 싱가포르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가정돌보미 지원으로 월 60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한다. 일하는 여성을 위하여 4개월간의 출산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모를 위한

유급 양육 휴가 6일을 제공한다. 자녀 양육 수당으로 300-767 싱가포르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연간 조세 감면으로 80,000 싱가포르달러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도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자 싱가포르 국무총리는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원하는 출산율 상승 결과를 얻을 수 없다<sup>3)</sup>”라고 선언하고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와 모성 보건을 강조한 정책을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하기로 하였다.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 나은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의 업무 규범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모성 보건 상태를 향상하기 위하여 고령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 및 출산 검사를 강화하고, 인공 임신 시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은 「2022년 여성 개발 백서」와 「2025년 가족을 위한 싱가포르 만들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2022년 여성 개발 백서」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이 온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여성들이 수십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과업들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 여성 개발 대화”를 시작하여 약 6,000명이 참석하는 160회 대화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화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영감을 기반으로 여성 개발 백서를 마련하였다. 어릴 때부터 공정함, 평등함, 존경, 연대에 대한 가치를 갖도록 하였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역할과 직업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 관념에 대해 알리기로 하였다. 부모가 양성 평등한 역할과 지지적인 관계에 대한 역할 모델을 하도록 하였다. 지지적인 근로 환경 및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공공 영역부터 싱가포르 여성들이 진취적인 정신과 기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 가족을 위한 싱가포르 만들기」는 혼인과 자녀 양육 그리고 노년기에 걸쳐 전 생애 주기 동안 가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혼인기에는 정부의 향상된 혼인 지원 정책을 통해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mily Zone@Gardens”와 “Our Marriage Journey”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혼 계획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의 생식 보건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3) "Given that it is not money alone, then if you are just putting more and more money into it, you may not necessarily get the outcome that you want" (Minister, PMO)

“Our Marriage Journey Quiz” 등 다양한 프로그램, 멘토링, 유용한 팁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위하여 더 많은 주거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자녀 양육기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포털 서비스를 통하여 입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Wise Journey”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과 활동적인 부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질 높고 비용 부담 가능한 유아 교육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셋째, 노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조부모 역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나은 손자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시적 위탁 혹은 재가 돌봄 지원 혹은 더 많은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FAM@Family Service Centre”를 통해 노년의 가족들이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상담과 중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4-15] 싱가포르의 「2022년 여성 개발 백서」와 「2025년 가족을 위한 싱가포르 만들기」



자료: TAN Poh Lin (2022) OECD Family Data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

## 제5절 태국

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48명으로 전년 대비 1.01% 하락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태국의 2020년 총 출생아수는 총 사망자수 보다 85,930명 많았으나, 2021년도에 들어와서 총 사망자 수가 총 출생아 수보다 19,080명 많아지게 되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태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태국에서 자녀 양육 비용이 매우 높다. 자녀 출생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약 1.9백만 바트(약 5만불)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혼인 연령의 증가와 이로 인한 불임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가정에서의 성역할이 여전히 불평등하다.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 보다 두 배 정도 높다. 넷째, 적절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직장에서 여성들은 일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태국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자녀 출산 당 15,000바트에서 420달러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셋째 자녀까지만 지원된다. 출산 전후 휴가로 9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공무원 직업을 가진 남성들은 아내 출산 이후 15일 동안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태국에서 셋째 자녀 이상은 사회보장체계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아동 수당으로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녀 연령 6세 미만까지 800바트를 제공받는다. 아동 수당은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가정으로 연간 소득이 100,000바트 이하(약 2,676달러)인 사람들은 자녀 보조금으로 자녀 연령 6세 미만 까지 자녀 당 월 600바트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세 지원 정책으로 연간 자녀 3명까지 30,000바트(약 840달러)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은 20세 미만이며, 재학 중인 경우 25세까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국은 낙태가 불법이었으나 2020년 2월 19일 법령 개정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게 되었다. 2020년 2월 19일 이전에는 형법 301조에 의거하여 낙태를 한 여성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낙태를 한 여성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6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를 시도한 여성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였다.

2020년 2월 19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낙태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여성의 건강 위험 때문에 낙태를 한 경우 허용하기로 하였다. “건강” 상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여성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낙태를 한 경우도 여성의 건강 위험으로 인한 낙태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여성의 동의 혹은 동의 없이 15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하여 임신한 경우 낙태는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2월 7일부터 추가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임신 12주 이상 및 20주 이내에 해당되는 여성들은 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임신 상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반드시 의료적인 전문가의 감독하에서 낙태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6절 베트남

베트남에서 최근의 가족 정책의 주요 동향으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가족 형성」과 「2021-2030년 가족 발전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2021년 「지시 문서 06-CT/TW」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가족 형성」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동 문서는 가족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아동 보호, 아동 돌봄과 교육에 가족이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번영하고 진보하며 행복하고 문명화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이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 발전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다.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 중점을 두고 산악 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에게 우선권을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21-2030년 가족 발전 전략」은 2045년을 목표로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족에 대한 국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과 사회경제적 발전 계획의 기초로 삼기로 하였다. 새로운 환경하에서 가족과 가족 형성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가족 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국가 정책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가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성평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가족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7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가족은 구조적으로 혈연, 결혼 혹은 입양으로 연결된 집단으로서 가족 구성으로서의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법과 샤리아법으로 구성된 가족법이 있으며, 가족을 위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48년에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주창하면서 가족법 제16조 3항에서 “가족은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국가 가족 정책은 “가족은 인간자본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라고 보았다. 이슬람 법전에서 가족은 결혼과 혈연을 통하여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족법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가족법이 다루는 영역은 첫째, 가족의 형성에서 혼인 전부터 혼인 그리고 혼인이 종료된 이후까지를 관련된 이슈이다. 둘째,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법적인 자격이다. 셋째, 생계 및 혼인 관련 자산 등 경제적인 부분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구 정책과 프로그램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6년도부터 국가 가족 계획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성장률을 3%에서 1986년 2%까지 감소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가 가족 계획법에 의거하여 국가 인구 가족 개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결과 1980년도에 인구 성장률은 2.8%까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2100년까지 총 인구 70백만을 달성하려는 목표하에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70년까지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5년간 출산율을 0.1% 포인트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농촌 지역의 보건 의료 체계를 향상 시키고 단체 혼인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1992년부터 국가인구정책 전략 1기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예상보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2100년에 총인구는 기존의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여 45백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동 전략은 인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가족 제도를 강화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2009년부터 국가인구정책 전략 2기를 추진하였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도에 인구대체수준에 달성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동 전략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부성 휴가, 특별 휴가, 유연한 근로 시간, 직장 내 보육 시설, 부양 자녀를 위한 세액 공제액 증가,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2017년부터 인구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최근의 인구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국가 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회경제적인 노력을 추구함에 있어 가족의 시각을 반영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세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가족 친화적인 서비스와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가족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 원칙으로 ① 모든 가족은 각자 물려 받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② 가족은 긍정적인 가족 가치를 양성하고 내재화하는 책임이 있다, ③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④ 강한 가족 관계, 자원을 공유하는 문화, 상호 책임은 가족의 안녕을 보장한다, ⑤ 지식과 정보는 가족의 안녕을 위한 기초이다, ⑥ 가족 친화적인 법령, 정책, 프로그램, ⑦ 가족 구성원들은 보호받고 존엄성을 지닐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⑧ 고용자는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족에 중점을 둔 기타 관련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사회 정책(2003)은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체계이다. 동 정책의 목적은 개인,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재를 보장하고, 인간의 삶을 개발하고 역량을 부양하며, 사회 지원 체계 및 서비스를 공고히 하며, 다양한 분야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여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행동 계획은 1989년에 여성들을 국가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동 정책은 2009년도에 남성과 여성의 개발을 위하여 자원과 혜택을 형평성 있게 공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되었다.

셋째, 연장자를 위한 국가 정책(2003년)은 1995년에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보완되어 변경되었다. 동 정책의 목적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노년과 함께 노인의 안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 은퇴 연령을 60세가

지 확대하고, 노인 재교육 및 가족 돌봄 (최대 5,000링깃)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넷째, 국가 아동 정책(2010년)은 아동 양육, 보호, 개발,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서 아동의 잠재력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아동 보호 정책은 아동 학대, 방임, 남용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 (1990년)은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 및 복지 관련 이슈에 중점을 두고 아동, 청소년,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정책은 사회복지부를 설립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육아휴직 정책이다. 1955년에 고용법을 제정하면서 60일 동안의 유급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출산 전후 휴가는 2011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90일로 확대되었다. 아동 양육 기간동안 출산 전후 휴가자는 월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2003년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3~7일 기간의 부성휴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곱째, 보육 정책은 1984년도에 보육시설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보육 시설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보육시설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어 6세 미만 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소득 기준 혹은 보편적인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공무원 부모들은 5,000링깃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직장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80링깃의 보조금을 제공받는다. 자녀를 지역 사회 보육 시설에 보내는 모든 가족은 도시 거주자의 경우 2,000링깃, 농촌 거주자는 1,200링깃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직장 보육 시설은 시설 수리 비용으로 200,000링깃을 지원 받는다. 소득조세 법령하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은 1,000 링깃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종합컨대, 1966년부터 말레이시아 인구 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2100년까지 총 인구를 70 백만명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 인구 성장률의 빠른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인구 정책은 가족 발전과 인적 자본 개발 그리고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총괄적인 가족과 인구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시기에 적절하게 가족 정책과 인구 정책이 재편되어



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 제8절 인도네시아

최근의 가족 정책 동향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과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과 이에 대응한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팬데믹 기간 동안 베이비 붐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21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합계 출산율은 2.24명으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아동 결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혼인 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종종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코로나19가 주는 영향력은 인구 집단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팬데믹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에 1,7백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젊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받은 영향력이 더욱 컸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고용전 카드(Kartu pra-kerja)”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 동안 해고 당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였다. 고용전 카드를 통해 온라인 훈련을 위한 바우처, 수당, 설문 조사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고용전 카드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63%는 종일제 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조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월 5백만 루피아 이하를 벌거나 고용 상해 보험에 가입한 15.7백만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 당한 근로자들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하여 고용 상해 보험 재원을 통해 월 1백만 루피아를 3개월까지 지급하였다. 고용 상해 보험료 지급을 6개월까지 면제해 주었다. 농촌 지역 현금 노동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였다.

최근에 확대된 가족과 아동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 대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특히 고립된 지역에 아동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연료비 절감을 위한 현금 지원, 전기료 감면을 하였다. 육아 휴직 관련하여 최근에 제안된 정책안은 다음과 같다. 출산 전후 휴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며,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며, 육아 휴직을 현행 2일에서 40일 유급 휴가로 제공하며, 유산한 경우 1.5개월 동안의 육아 휴직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동 보건과 관련하여 코로나 팬데믹 확산 시기 동안 일어난 예방접종의 중단에 대응하여 전 국가적인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의 정신 보건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2-23년도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를 성공적으로 새롭게 갱신하여 제공하였다. 올해 업데이트 결과 과거 연도에 제공되었던 자료들이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에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던 지표에 대하여 새롭게 자료가 제공되는 성과를 보였다.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기존에 활용했던 조사 자료들이 새롭게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최근의 연도 자료로 갱신한 경우이다. 인구센서스, 노동력 조사 등 각 국가의 통계청이 일정한 주기별로 신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올해 신규 데이터로 갱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조사 자료가 공개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까운 시일에 최근의 연도의 자료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데이트되지 못한 자료 중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는 있으나 원자료가 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혹은 자료의 제공 방식이 OECD와 다를 경우 통계 제공 기관의 협조 하에 어느 정도 자료 제공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료 공개가 대중에게 어려운 경우 해당 지표에 대한 분석을 담당 부서에게 요청하여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령 집단 구분 등 자료 제공 방식이 OECD와 다르다면 통계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기존의 제공 방식과 더불어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제공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뢰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업데이트되기 가장 어려운 지표들은 관련된 조사를 국가에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각 국가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각 국가에서 이러한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출산 관련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출생 신

고 자료에 기반한 인구 동향 출생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아태지역 국가에서 출생 신고에 기반한 인구 동향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국가들은 샘플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관련 지표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생 신고 체계를 확립하여 신고 자료에 기반한 출생 동향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생 관련 지표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돌봄 시간과 노동 시간에 대한 자료 역시 OECD는 시간 일지 작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시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자료 구축을 위해서 향후 아태지역 국가에서 생활시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료 구축이 어려운 또 다른 경우는 관련된 조사는 있으나 해당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기존에 확립된 조사 체계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OECD 지표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해당 OECD 지표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당 조사의 체계를 변경하거나 신규 조사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ECD가 직접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지표에 대해 아태지역 전문가들이 OECD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아태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태지역 전문가들의 자료를 생산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OECD의 분석 방법론이 아태지역에 있는 비OECD 국가들에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동과 가족 정책 부분에 포함된 지표들 중에서는 아직도 해당 정책이 아태지역에 도입되지 않아서 자료를 생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일본·싱가포르에서도 과거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유럽의 가족 정책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되었거나 확대된 정책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 유형의 가족 정책들이 향후 아태지역 국가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아직 아태지역에 도입되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 각 국가의 전문가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아태지역 가족 정책의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ECD FD의 정책 관련 지표 중에서 정책의 내용과 함께 이용자 수 혹은 급여 지급 액수 등 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한 내용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 정책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정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정 자료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OECD FD에 포함된 모든 지표에 대해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OECD FD에 있는 지표들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OECD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지표들이다. 특히 출산과 가족 지표들은 유럽 국가가 가지고 있는 출산과 가족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유럽 국가와는 다른 출산과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ECD FD 지표 중에서 아태지역의 출산과 가족 문화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아태지역의 출산과 가족의 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면서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현재 동거혼은 아태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도 유럽 국가와 같이 동거혼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동거혼에 대한 자료 구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아태지역의 특유한 문화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태지역에서는 아직도 조부모와 함께 같은 가구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이 많다. 따라서 3세대 가구 유형을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녀 돌봄 못지 않게 아태지역에서는 노인 부모 돌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지표도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출산과 고용률 등 기본적인 지표에 대해서 아태지역 국가들은 OECD의 정의에 부합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 역시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지표들 이외 세부적인 집단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근로 유형을 가족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면, 빈곤율을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는 지표들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도 세부적인 집단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 계층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어떠한 집단이 해당 이슈를 더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 집단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의 경우 아태지역 국가들은 OECD와는 다르게 지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가족 유형과 관련된 지표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 혼외출산은 15-19세 청소년 출산율로서 보고 있다. 따라서 OECD의 정의에 부합하여 해당 국가의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별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료를 수집하되,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슈에 주의하여 제공된 지표의 자료를 이해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동 수당과 부부 간 육아 휴직 할당제 등과 같이 아직 아태지역 국가에 도입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OECD의 정의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 아태지역에 도입되지 않은 가족 정책의 유형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 아태지역 전문가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최근 가족 정책 동향을 살펴 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산 행태와 가족 유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각 국가에서 가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보다 먼저 출산과 가족에서 변화를 경험한 국가들은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정책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파하여 정책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후발 국가들이 가족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유사한 가족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국가 간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여 유용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아태지역 가족 전문가들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신윤정, 김현식, 이지혜. (2012).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 (2013). Comparative Study of Family Policy in East Asia: Korea, China, Japan, Singapore.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송민영, 조영태, Stuart Basten. (2014). Comparative Study of Family Policy in East Asia: Korea, China, Japan, Singapore, Hong-Kong China, Thailand, Vietnam.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이지혜, 임지혜. (2021). 2020-21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17).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7 Project Report.
- OECD. (2019).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9 Project Report.
- OECD. (2021).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21 Project Report.
- Mengni Chen. (2022) Family Policy data in China,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
- Junko Takezawa. (2022) Japan Report in Asia-Pacific Region: Recent family policy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Family Data 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
- TAN Poh Lin. (2022) OECD Family Database, The 6th Family Policy Experts Mee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29 November 2022*. 3:30-5:30 Seoul Time, Zoom Meeting.



<부록 표 1>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체계: 가족의 구조<sup>4)</sup>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1. Structure of family	SF1. Family & Children	SF1.1. Family Size & Composition	Chart SF1.1.A. 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1.1.A. Types of household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1.1.B. 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SF1.2. Children in Families	SF1.2. Children in Families	Chart SF1.2.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1.2.B. Trends in living arrangement of children, 2005 to 2021
			Chart SF1.2.C. 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Distribution of children by the presence and marital status of parents
	SF1.3.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SF1.3.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Table SF1.3.A. Living arrangement of children by age
			Table SF1.3.B. Living arrangement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Table SF1.3.C. Living arrangement of children by mothers'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Table SF1.3.D.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Chart SF1.4.A. 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1.4. B. 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1.4.C. Trends in child population, selected Asia-Pacific countries
			Chart SF1.4.D. Youth dependency ratio, 1990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1.4.E. 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Asia-Pacific countries

4) 2022년 5월 17일 현재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었던 내용임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Child and youth population
			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Youth Dependency Ratio
		SF 1.5.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Chart SF1.5.A. 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1.5.B. 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1.5.C. 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1.5.A. 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 1.5.B. 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1.5.C. 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or latest available year
			SF2. Fertility Indicators
	Chart SF2.1.B.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Chart SF2.1.C.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2.1.D.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or latest available		
	Total fertility rate, 1960-2021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60-2021		
	SF2.2. Ideal & Actual Number of Children	Chart SF2.2.A.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2.2.B.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2.2.C.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2.2.D.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2.2.E.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2.2.F.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 Age-Specific Fertility	SF2.3.	Chart SF2.3.A. Mean age of women at birth,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Chart SF2.3.B.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Chart SF2.3.C. Adolescent fertility rates,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Chart SF2.3.D.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Mean age of women at childbirth
				Mean age of women at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Fertility rates by women's age at childbirth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Chart SF2.4.A.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Chart SF2.4.B.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SF2.5. Childlessness	Table SF2.5A. Childless women at age 40-44, mid-1990s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2.5A. Definitive childlessness		
		Chart SF2.5B. 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SF3. Marital & Partnership Status	SF3.1. Marriage & Divorce Rates	Chart SF3.1.A. 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3.1.B.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3.1.C. Crude divorce rate,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3.1.D. 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rude marriage rates				
Mean age at first marriage				
Crude divorce rates				
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SF3.2. Family Dissolution & Children		Table SF3.2.A. 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3.2.B. 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Chart SF3.2.A. 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16+ year 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SF3.2.B. Proportion of parents (16+ year 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various years
		SF3.3. Cohabitation Rate &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Table SF3.3.A.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3.3.B.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SF3.3.C.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SF3.4. Family Violence	Chart SF3.4A. 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hart SF3.4B Attitude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Table SF3.4A. Details on the source used for chart SF3.4A

<부록 표 2>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체계: 노동 시장에서 가족의 현황<sup>5)</sup>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2. The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1. Families, Children & Employment Status	LMF1.1.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Chart LMF1.1A.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1.B. 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1.C. 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1.D. 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Distribution of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Distribution of 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Distribution of 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Distribution of children in complex familie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LMF1.2. Maternal Employment	LMF1.2.A Maternal Employment	Chart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2.B. 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2.C.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2.D.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2.E.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2.F. 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20 to latest available year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part-time/full-time status (15-6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15-64)			

5) 2022년 5월 17일 현재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었던 내용임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15-6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15-6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15-6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part-time/full-time status (25-5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5-5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5-5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5-5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5-54)
		LMF1.3.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Chart LMF1.3.A.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21 or latest available
			Chart LMF1.3.B.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Chart LMF1.3.C.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Chart LMF1.3.D.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partnership status (15-6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partnership status and level of education (15-64)
			Maternal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women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15-6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partnership status (25-54)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partnership status and level of education (25-54)
			Maternal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women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5-54)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25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4.B.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a,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1.4.B.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Male age-employment profiles, 1990-2022
			Female age-employment profiles, 1990-2022
			Data for Age-unemployment profiles by sex,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Age-unemployment profiles by sex,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Chart LMF1.5.A.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Chart LMF1.5.B. 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rs, 1975-2021
			Chart LMF1.5.C. Gender gap in mean full-time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25-64 year olds or latest year availabl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 time employees, 1970-2021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	Chart LMF1.6.A. 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Chart LMF1.6.B. 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Chart LMF1.6.C. Change in part time employment
			Table LMF1.6.A. 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Chart LMF1.6.D. 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Chart LMF1.6.E. 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Men's employment rates, 1990-2021
			Women's employment rates, 1990-2021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Men's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1995-2021 Women's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1995-2021 Proportion of employed men in part-time employment, 1990-2021 Proportion of employed women in part-time employment, 1990-2021 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rates, 2011-2021 Men's temporary employment rates, 1990-2021 Women's temporary employment rates, 1990-2021
	LMF2. Workplace Hours & Time for Caring	LMF2.1.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LMF2.2. Patterns of Employment &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Chart LMF2.1A. 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Chart LMF2.1.B. 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1995 to 2021 Employed men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1980-2021 Employed women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1980-2021  Chart LMF2.2.A.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2.2.B. 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Table LMF2.2A.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LMF2.2.B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LMF2.2.C.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LMF2.2.D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p>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LMF2.2.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LMF2.2.F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p> <p>Employment patterns for couples with children</p> <p>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p> <p>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p>
		LMF2.3. Patterns of Employment &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p>Chart LMF2.3.A. 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LMF2.3.A.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p> <p>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p> <p>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p>
		LMF2.4.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p>Chart LMF2.4.A. 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p> <p>Chart LMF2.4.B.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p> <p>Chart LMF2.4.C. 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p> <p>Chart LMF2.4.D.: 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p>
		LMF2.5. Time Used for Work, Care, & Daily Household Chores	<p>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LMF2.5.B. 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p> <p>Chart LMF.2.5.A. 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p>

130 2022-23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under school age,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2.5.B. 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LMF2.6. Time Spent Traveling to and from Work	Chart LMF2.6.A. 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LMF2.6.A.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LMF2.6.B. 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LMF2.7. Subjective Well-Being & Satisfaction Work-Life Balance	Chart LMF2.7.A.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21 or last available year
			Chart LMF2.7.B.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Chart LMF2.7.C. 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21 to last available year
			Chart LMF2.7.D. 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LMF2.7.E. 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21

<부록 표 3>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체계: 가족과 아동 정책<sup>6)</sup>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3.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1.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Chart PF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on families over time
			Gross Domestic Product, 1980–2021
		PF1.2.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Chart PF1.2.A.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1.2.B. 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by level of education,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PF1.3. Family Cash Benefits	Table PF1.3.A. Availability of family cash benefits by types, 2020
			Chart PF1.3.A. 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s and earnings
			Chart PF1.3.B. 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Chart PF1.3.C. 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PF1.4. Neutrality of Tax-Benefits Systems	Table PF1.4.A.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Chart PF1.4.A. 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Neutrality of tax and benefit systems for couples with household earnings equal to 133% of average earnings, 2001–2014
Neutrality of tax and benefit systems for couples with household earnings equal to 200% of average earnings, 2001–2014			
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at various earnings levels, 2001–2014			

6) 2022년 5월 17일 현재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었던 내용임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PF1.5.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Table PF1.5.A. A 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Table PF1.5.B. Trends of Sole-parents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Table PF1.5.C. Levels of Child Maintenance Payments	
		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Chart PF1.6.A. 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Chart PF1.6.B.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Chart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Chart PF1.6.D. Education dominates in middle childhood (6-11 years)	
		Chart PF1.6.E. As it also in late childhood (12-17 years)	
		PF1.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Chart PF1.7.A. Age profile of net transfers
		Chart PF1.7.B. Older people are much more likely to be givers than takers: transfers of money and time	
		Chart PF1.7.C. Money goes mostly to children, while time goes mainly from children to parents	
		Chart PF1.7.D. Many grandparents spend time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PF1.8.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Table PF1.8.A. Age of majority,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PF1.8.B.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PF1.8.C. Minimum age for marriage,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PF1.8.D. 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PF1.8.E. 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PF1.8.G. 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PF1.9. Aspects of Child Protection	<p>Chart PF1.9.A. In most countries intentional child mortality is very rare</p> <p>Chart PF1.9.B. Child mortality rates declined in almost all OECD countries since the 1970s</p> <p>Table PF1.1.9.A. 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p> <p>Table PF1.9.B. 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p> <p>Chart PF1.9.C.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p> <p>Figure Annex7. A1. International and accidental child mortality rates, 1970~latest</p> <p>Intentional death per 100,000 aged &lt; 5</p> <p>Intentional death per 100,000 aged &lt; 15</p> <p>Accidental death per 100,000 aged &lt; 5</p> <p>Accidental death per 100,000 aged &lt; 15</p>
	PF2. Child- Related Leave	PF2.1. Key Characteris- 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Table PF2.1.A.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p> <p>Table PF2.1.B.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p> <p>Chart PF2.1.A. Paid maternity leave</p> <p>Chart PF2.1.B.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p> <p>Chart PF2.1.C. Paid leave reserved for fathers</p> <p>Chart PF2.1.D.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p>
		PF2.2. Use of Childbirth- Related Leave Benefits	<p>Chart PF2.2.A.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p> <p>Chart PF2.2.B. Users of paid parental leave</p> <p>Chart PF2.2.C. 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p> <p>Paternity leave users</p> <p>Parental leave users</p>
		PF2.3.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p>Table PF2.3.A. 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p>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PF2.4.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Chart PF2.4.A.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2.4.B. P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2.4.C.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2.4.D. 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2.4.E. 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PF2.5.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Chart PF2.5.A.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0 and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2.5.B. Length of employment-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2.5.C.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0, 2000 and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Time-Series
		PF3. Formal Care &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 Early Education
Chart PF3.1.B.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Time series			
PF3.2. Enrolment in Childcare & Pre-School	Chart PF3.2.A.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 year olds		
	Chart PF3.2.B.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 year olds		
	Chart PF3.2.C.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 year olds		
	Chart PF3.2.D.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 year olds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Chart PF3.2.E.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 year olds
			Chart PF3.2F.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 year olds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 year olds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PF3.3.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Chart PF3.3.A.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Chart PF3.3.B. Use of informal child 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Chart PF3.3.C.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Chart PF3.3.D. 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Table PF3.3.A. Use of informal childcare in other countries	
	PF3.4. Childcare Support	Chart PF3.4.A. Gross childcare fees early-years care and education services, 2021	
	Chart PF3.4.B. 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 earner couple family		
	Chart PF3.4.C. 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 parent family		
	PF4. 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PF4.1. Typology of Childcare & Early Education Services	Detailed description on typology of childcare
	PF4.2. Quality of Childcare & Early Education Services	Chart PF4.2.A. 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PF4.2.B. 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Table PF4.2.A. Minimum qualification of ECEC professionals
		PF4.3. Out-of-School-Hours Care	Chart PF4.3.A. Participation rates in center-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Chart PF4.3.B. Average hours in center-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Chart PF4.3.C. Participation rates in center-based out of school 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Chart PF4.3.D. Participation rates in center-based out-of-school 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부록 표 4>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체계: 아동의 성과<sup>7)</sup>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4. Child Outcomes	CO1. Child Health	CO1.1. Infant Mortality	Chart CO1.1.A. 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1.B. 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1.C. 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1960–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O1.2. Life Expectancy at Birth	Chart CO1.2.A. 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1
			Chart CO1.2.B.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1 to latest available
			Chart CO1.2.C.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 (HLY) at birth,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1
		CO1.3. Low Birth Weight	Chart CO1.3.A.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21 or latest available
			Chart CO1.3.B. 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21 or latest available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60–2021
		CO1.4. Vaccinati on Rates	Chart CO1.4.A. 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4.B.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for measles, 1980–2021
			Incidence of pertussis and measles, 1980–2021

7) 2022년 5월 17일 현재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었던 내용임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CO1.5. Breastfeeding Rates	Chart CO1.5.A.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5.B.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O1.6. <del>Disease Based</del>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 Asthma among Children	Chart CO1.6.A. 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6.B. 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6.C. 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
		CO1.7 Overweight & Obesity at Ages 11, 13 & 15, by Gender	Chart CO1.7.A. 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7.B. 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7.C. Rates of missing BMI data,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CO1.8.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 15, by Gender	Chart CO1.8.A.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1.8.B. 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CO1.9. Child Disability	Chart CO1.9.1. Boys are more likely than girls to experience a disability,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CO1.9.1. Proportion of young people limited in activities because of health problems by sex and age,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CO1.9.2.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CO1.9.3. 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p>Table CO1.9.4. 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CO1.9.5. 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16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CO1.9.6. Family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p>
	CO2. Child Poverty	CO2.1. Income Inequality &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p>Chart CO2.1.A. 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2022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CO2.1.A. Measures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4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p> <p>Chart CO2.1.B. 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2 or latest available year</p> <p>Income inequality, 1987–2022</p> <p>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1987–2021</p>
		CO2.2. Child Poverty	<p>Chart CO2.2.A. Child income poverty rates, 2020 or nearest available year</p> <p>Chart CO2.2.B. Child income poverty rates, 2006, 2011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p> <p>Chart CO2.2.C. 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p> <p>Chart CO2.2.D. 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p> <p>Poverty rates, 1987–2021</p> <p>Poverty rates by household types, 1987–2021</p> <p>Poverty rate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1987–2021</p>
		CO2.3.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p>Table CO2.3.A. 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or latest available year</p> <p>Table CO2.3.B. 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r latest available year</p>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Chart CO2.3.A. 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2.3.B. 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r latest available year
	CO3. Education / Literacy	CO3.1.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 Expected Years in Full-Time Education	Chart CO3.1.A.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an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3.1.B.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CO3.1.A. 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CO3.1.B. 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Table CO3.1.Y. Male 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CO3.1.Z. Female 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CO3.2. Gender Differences in Univ.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Chart CO3.2.A. Men's and women's share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Chart CO3.2.B. Men's and women's share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Chart CO3.2.C. Men's and women's share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CO3.3.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Chart CO3.3.A.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TIMSS 2011) and science (TIMSS 2011) Chart CO3.3.B. 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 Chart CO3.3.C. 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CO3.4.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Chart CO3.4.A.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Chart CO3.4.B.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Chart CO3.4.C. 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Chart CO3.4.D. 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Chart CO3.4.E. 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00–2018
		CO3.5.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Chart CO3.5.A. NEET rates for 15–29 year olds
			Chart CO3.5.B. NEET rates across age groups
			Chart CO3.5.C. 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Chart CO3.5.D. 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
			Proportion of 15–29 year old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by age group, 2000–2021
			Proportion of 15–29 year old men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by age group, 2000–2021
			Proportion of 15–29 year old women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by age group, 2000–2021
		CO3.6.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 Their Educational Outcomes	Chart CO3.6.A.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9 and 2018
			Chart CO3.6.B. 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8
			Chart CO3.6.C. 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Chart CO3.6.D.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대영역	중영역	지표	표·도표
			Chart CO3.6.E. 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8
			Chart CO3.6.F.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students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CO4. Societal Participation	CO4.1.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Table CO4.1.A. A Proportion (%)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 (active or inactive) of organiz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Table CO4.1.B. 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Table CO4.1.C. 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zations in the past year			
Table CO4.1.D. 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8			
		CO4.2.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Chart CO4.2.A. Voter turnout at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22 or latest year available
Table CO4.2.A.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Chart CO4.2.B. 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CO4.3. Alcohol &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Chart CO4.3.A. 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20 or latest year available
Chart CO4.3.B. 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Chart CO4.3.C. 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7			
Chart CO4.3.D. 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CO4.4. Teenage Suicides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21
Chart CO4.4.B. 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Chart CO4.4.C.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21			